

#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들

창군 60주년 기념, 창공 구락부 시선 中

조지훈(趙芝薰)

하늘은 우리의 고향  
 그리고 또 하늘은 우리의 서울,  
 떠나서 그리움에 우리 항시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검은 흙 위에 발을 디엿기에  
 우리 가고 싶은 마음의 전당(殿堂)을 하늘에 둔다.  
 푸르고 밝은 하늘에 검은 구름이  
 깨어도 구름을 걷는 것만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예대로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  
 육신만으로는 육된 세상을 어쩔 수가 없어서  
 새삼스리 마련된 은빛 영혼의 날개  
 그대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서러울 리 없는 고향의 하늘에  
 인정과 의를 저버리면  
 삶과 주검을  
 제 마음대로 바쳐서 가는 길에  
 하늘이 열린다.

열리는 하늘은  
 그대로  
 우리 영혼의 서울,  
 아아 푸른 하늘 빛  
 웃을 입은 병정  
 이 맑은 하늘의 뜻을 받음이  
 정의라고 믿어라.  
 태양은 우리의 것  
 저 신비의 세계도 우리의 것.  
 떼지어 오늘 흐르고,  
 내일도 흐를  
 저 하늘의 정열은  
 태양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뜨거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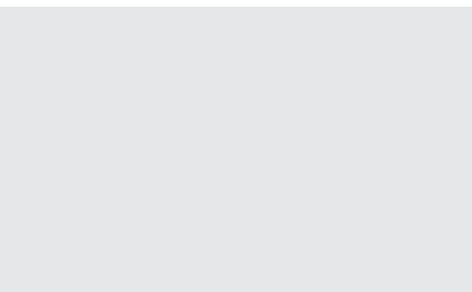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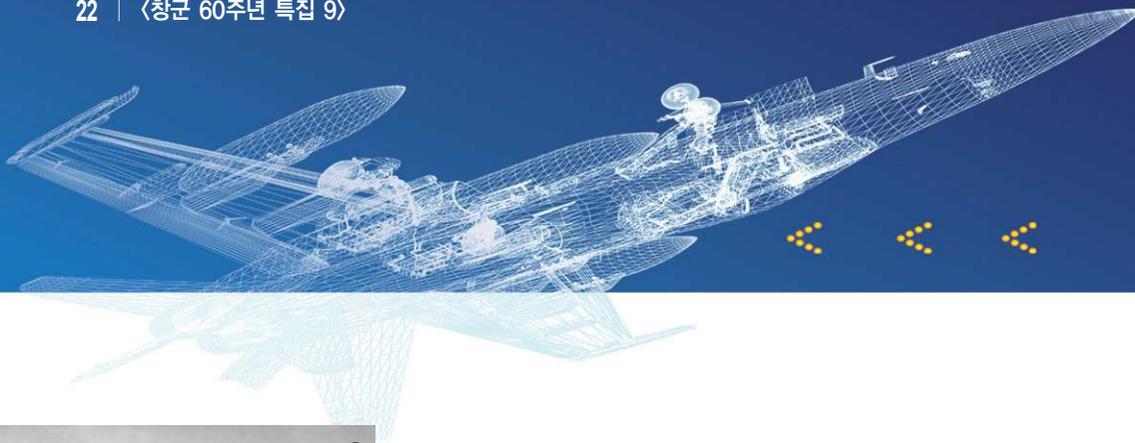
## ■ 시 해설

하늘을 지키는 젊은이들에게 하늘은 고향이며, 영혼의 서울이며, 마음의 전당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검은 구름을 걷는 것만이 아니라 푸른 하늘을 보는 것이 소망이며, “육신만으로는 육된 세상을 어쩔 수가 없어서” “은빛 영혼의 날개”가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땅에서 배우고, 땅은 하늘에서 배우고, 하늘은 진리에서 배운다(人法地 地法天 天法道)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흙 위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뜻을 받음이 정의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늘의 진리, 하늘의 정열을 받아 의롭고 뜨겁게 살기를 시인은 바라고 있습니다.

- 시인 도종환 -

## ■ 창공 구락부(蒼空 俱樂部)는?

1951년 공군중군문인단으로 결성된 후 전쟁기간 중 코메트誌(월간공군 전신) 및 공군순보(한국전시 발행되었던 뉴스레터) 등의 제작에 참여하고 기타 전의고양 및 항공사상 양양을 위한 각종 작품을 발표하여 공군 장병들의 사기증진 및 공군홍보에 기여하였음(회원 : 마해송, 황순원, 김동리, 박복월, 박두진, 조지훈, 최정희 등 16명).



#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9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 F - 86F

세이버(Sabre)라는 별명을 가진 본 항공기는 미국 최초의 후퇴익 1인승 제트 전투기이다. F-51 전투기를 주력전투기로 운용하던 대한민국 공군은 MIG-15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신예기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4년 3월과 11월에 미국과 공군력 증강을 위한 협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 공군에 F-86F 전투기 1개 비행단과 C-46D 수송기 1개 전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55년 6월 20일 F-86F 전투기 5대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제트화 시대는 그 서막을 열게 되었다.

6·25 전쟁 당시 '썩썩이'로 불리며 제트기로서는 최초로 MIG기와 첫 공중전을 벌였던 F-86F 전투기는 신상옥 감독의 공전의 히트작인 '빨간 마후라'와 곡예비행팀인 블루 세이버(Blue Sabre Team 1959년부터 1966년)를 통하여 한국 공군의 상징으로 그 위용을 떨쳤으며 1990년 일선에서 퇴역하였다.

## ● UH-1B

UH-1B는 BELL 204를 군용으로 개조한 2개의 회전날개를 가진 다목적 헬리콥터이다. 1962년 최초로 비행하였으며 월남전에서 공격용 헬기 및 무장 호송기로 운용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UH-1B 헬기를 1977년 7월 12일에 도입하여 작전지원, 공수낙하훈련 및 대민 지원 등의 임무에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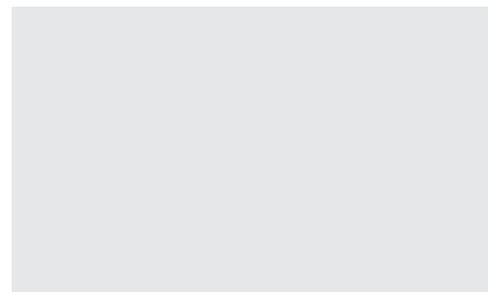
● **CN-235M**

1973년 도입하여 운용을 시작한 C-123 수송기가, 장기간 운용에 따른 항공기 노후화와 빈번한 기체결함,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는 1989년 12월에 C-X사업(중형수송기 도입사업)에 대한 소요제기를 통하여 스페인 CASA社의 CN-235M-100 수송기와 이탈리아 Aeritalia社의 G-222 수송기를 도입 대상기종으로 선정하였으며, 1992년 4월에 CN-235M 수송기 도입을 최종 결정하였다.

스페인의 CASA社와 인도네시아의 IPTN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CN-235M 수송기는 비정규진, 탐색구조, 특수지역 병참공수 등의 특수임무능력과 2,060NM의 항속거리에 48명의 병력, 13,200LBS의 화물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형수송기로서 우리 공군은 1994년 1월 12일 1차분을 도입하였다.

이후 CN-235M 추가도입은 인도네시아와의 방산물자 상호 대응구매에 따라 IPTN社로부터 이루어졌으며, 현재 우리 공군은 스페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총 00대의 CN-235M 수송기를 도입하여 무기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항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C-130H 수송기와 함께 공군의 주력 수송기로서 성공적인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㉞**

- ① F-86F 전투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1955)
- ② F-86F 전투기 무장전시
- ③ F-86F 전투기 연료보급
- ④ F-86F 전투기 무장장착
- ⑤ F-86F 전투기 곡예비행팀(1966)
- ⑥ F-86F 전투기 명예퇴역식(1990)
- ⑦ UH-1B의 지상전시
- ⑧ 제233구조비행대대 파견대에서 거행된 83-1차 UH-1B 전환교육 수료식
- ⑨ ⑩ ⑪ 제5전술공수비행단에서 열린 CN-235M 수송기 도입식
- ⑫ 도입식 후 김홍래 참모총장은 CN-235M 시승 및 기념촬영 실시함.



## 제1·3대 참모총장

## 공군 창군의 주역 김정렬 장군

글 이문호 | 공사총동참회 사무총장, (예)준장

**공**군창군 60주년을 맞았다. 우리 공군은 최신에 전투기인 F-15, F-16 등으로 무장한 막강 전력으로 성장하여 우리 조국의 영공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현대전에서 공군은 전쟁역제의 핵심이고 전시에는 전승의 주역이라는 것은 걸프전 이후의 전쟁에서 지상군 전선이 형성되기도 전에 공군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력의 발전은 1948년 통위부 소속으로 창설된 항공부대가 육군 예하 항공사령부를 거쳐 1949년 10월 1일 공군으로 독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은 김정렬 장군을 포함한 창군 7인이 담당하였다. 미 공군도 육군에서 독립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던 1949년 당시 김정렬 대령은 '장차전은 입체전으로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국군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국방안전을 기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군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당시 육군을 포함한 주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불과 1,600여 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로 공군 독립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김정렬 장군은 언제나 변치 않는 것은 푸른 하늘에 대한 꿈과 조종에 대한 향수라면서 비행기만 타면 앓던 병도 낫더라고 말하던 영원한 조인(鳥人)이었다. 그 분이 걸어온 길은 오로지 우리 공군과 나라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일관한 길이었다. 일찍부터 그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뻗어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하늘에 눈을 돌려 조종사의 길을 택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 치하에서 일본 육사를 나와 비행기량 숙달에 전념하던 그는 광복을 맞이하자 귀국하여 항공계의 조선인 선각자들과 함께 공군창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군을 창설하였다. 선구자이고 개척자였던 당시 김정렬 대령은 초대 공군총참모장의 중책을 맡고 무엇보다도 체제정비와 전비태세를 갖추는 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 특히 "한국인은 모두가 항공인이 되자"고 호소하면서 범국민적인 애국기 헌납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와중에도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단숨에 우리 힘으로 10대의 연습기를 갖추 수 있었다.





얼마 후 6·25가 발발하자 우리 조종사들은 이 건국기를 타고 출격하여 우리 공군의 존재와 투지를 보여 주었고, 기습남침으로 당황하고 있던 우리 국민과 국군의 사기를 드높였다. 창군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6·25라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일면 전투, 일면 훈련에 임하여 위기를 극복하였고, 1952년 10월 후진양성과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겠다는 일념으로 직접 이승만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올려 스스로 총참모장 직을 이임하였다.

역대 참모총장 연설집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장군은 상소문에서 “공군 총참모장 직을 임기제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심사숙고한 결과 지금 현 직책에서 해면(解免)되는 것이 최선의 시기라고 판단되고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둔다 함은 남아평생의 자량인만큼 부디 자이를 일층 수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면서 “지와 덕을 겸비한 최용덕 장군을 총참모장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다.

그 후 다시 최용덕 장군의 후임으로 제3대 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되자 공군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투기 시대를 열고 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전술공군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국방부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겨레와 나라를 위해 잠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분이였다. 특히, 국방부장관 시절 3·15 부정선거로 촉발한 4·19 의거 때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극도로 정국이 혼란할 때인 데도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 장관마저 인의 장막을 치고 진실을 외면할 때,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을 말하면서 하여야를 건의하여 학생들의 희생을 줄인 것도 김정렬 국방부장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또 일류 기업이던 삼성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초창기 거의 빈손으로 출발했던 우리 공군이 오늘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필승의 정예공군으로 일취월장하게 된 것은 바로 김정렬 장군과 같은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크나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㉞

# 10월의

# 공군역사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공군 창군(1949년 10월 1일)

전투기 한 대 없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L-4, L-5 연락기와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T-6 견국기 등 불과 20여 대 남짓한 항공기를 가지고 일개 군으로 독립하는 것은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었다. 특히 육군과 미 고문단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미 고문단은 “한국의 육군이 초창기이므로 통신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의 항공대가 필요할 뿐 공군 독립은 육군이 충분히 성장한 뒤에 논의할 문제다”며 공군독립을 반대하였고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역시 “공지합동작전을 위해서는 공군을 육군 예하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공군독립을 찬성하지 않았다.



공군독립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군장병들의 가장행렬 모습 (1951년 10월 1일)

그러나 항공인들은 “현대전은 입체전이며 공군세력의 우세 없이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군을 육군에서 분리 창설하여 3군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며 공군독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다각도로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렬 장군은 ‘항공의 경종’이라는 책자를 발간, 정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항공사상의 계몽과 공군독립의 시대적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전 항공인이 하나된 공군독립 운동은 1948년 국군조직법상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이 필요한 때는 독립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반영되었고, 1949년 10월 1일 마침내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에 의거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되었다.

##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개최(1979년 10월 7일)



1981년 제3회 모형항공기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체신부에서 발행한 기념우표

공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대한항공연구회에서 주최한 모형항공기 대회를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일보, 미 8군 및 수송과학기술협회, 한국모형항공협회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민간 모형항공기 대회를 직·간접적으로 후원해 왔다. 그러나 장차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재(棟梁材)인 초·중고생들에게 푸른 하늘에 대한 동경과 꿈을 심어주며 이를 통하여 항공 산업발전을 견인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자각하에서 1979년 10월 7일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를 공군사관학교(대방동)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제1회 대회는 글라이더(자유비행), 고무동력기(자유비행), 유·무선 조종 등 4개 분야에 3천2백여 명이 전국 5개 지역예선에 참가하였



으며, 본년에는 610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제3회 대회 때는 체신부에서 모형항공기 대회를 기념한 특별우표도 발행하여 범국민적인 행사로 성장한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의 장도를 축하해 주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항공축제로 그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는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는 연평균 1만 5천여 명의 예비 항공인들이 참가하여 하늘을 향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산실이 되고 있으며, 2008년 30회 대회(5월 18일)에서는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 과학축제로서 위상을 다지기 위하여 대회 명칭을 '제30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8' 이라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세미나 및 대회 역사자료 전시회와 경기개최 항목으로 '물 로켓 발사' 를 추가하여 그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서울에어쇼 '96 행사는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블랙이글스팀 외에도 호주의 Sierra Ace, 라팔, Su-27 등이 참가하여 고난이도의 공중 기동을 선보였다.

### 서울에어쇼 '96 개최(1996년 10월 21일)

서울에어쇼 '96 행사(정식명칭 제7회 서울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및 에어쇼)는 21세기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군의 대국민 유대강화 및 범국민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관, 대한민국 공군 주최로 1996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서울공항에서 진행되었다.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를 주제로 하여 총 107,000명의 전시장에 대한 항공, 삼성항공, 보잉, 록히드 마틴, BAe 시스템 등 21개국 세계 유수의 214개 업체가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 서울에어쇼 '96 행사는 총 입장객만 552,000명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치렀다.

### F-15K 첫 2대 한국 도착(2005년 10월 7일)

공군이 美 보잉사로부터 도입했던 F-15K 40대 중 첫 두 대가 '05년 10월 7일 한국에 도착했다. 이번에 도착한 F-15K 두 대는 지난 2일, 미국 세인트 루이스 기지를 이륙해 하와이, 괌의 미군기지에서 한 차례씩 기착했다. 비행 내내 美 공군의 공중급유기 KC-135가 함께 비행하며 공중급유를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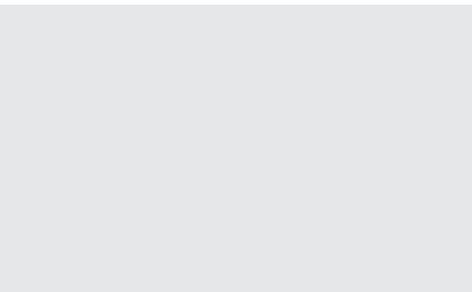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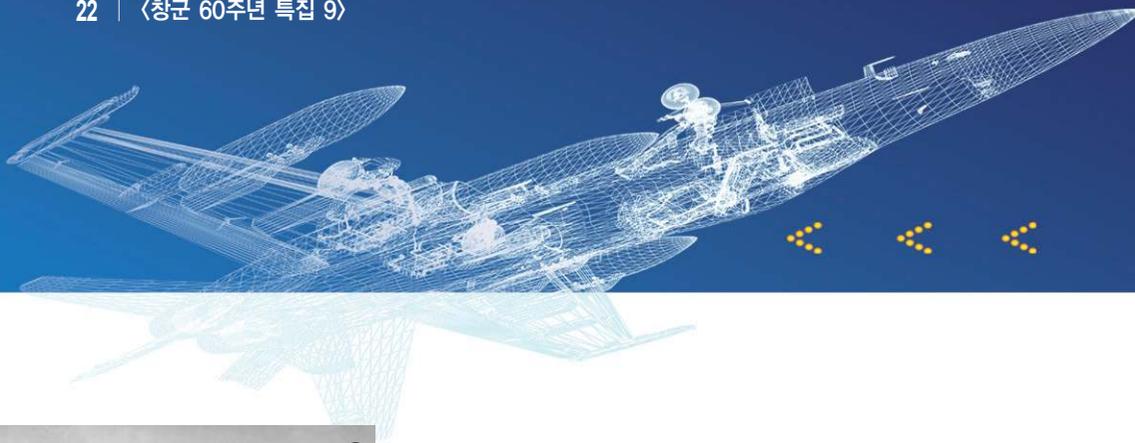
두 대의 F-15K는 중간 기착지인 괌을 7일 오전 이륙해 같은 날 오후 공군 서울기지에 착륙했다. 세인트 루이스부터 총 1만 5,962km를 날아 한반도에 무사히 안착한 것이다. 순수 비행시간만 해도 20시간이 넘었다.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경제속도인 시속 900~1,000km로 순항했기 때문이다.

두 대의 F-15K 조종간은 美 보잉사의 조종사 두 명이 앉았다. 후방석에는 한국 공군의 이영수 (당시)소령과 보잉사의 무장통제사가 각각 탑승했다. 이 소령은 F-15K 전함 및 교관훈련을 받은 8명의 한국 조종사 중 가장 만형격으로 '04년 6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미국 시모어 존슨 기지 등에서 비행 훈련을 받았다.

도착한 F-15K는 한국 공군에 인도될 40대 중 3·4호기로 11월 한국 공군의 수락검사 후 공식 인도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기지에서 있을 「서울에어쇼 2005」에서 국민에게 첫 공개되었다. (4)



세인트 루이스로부터 총 1만 5,962km를 날아 한반도에 무사히 안착한 F-15K



#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9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 F - 86F

세이버(Sabre)라는 별명을 가진 본 항공기는 미국 최초의 후퇴익 1인승 제트 전투기이다. F-51 전투기를 주력전투기로 운용하던 대한민국 공군은 MIG-15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신예기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4년 3월과 11월에 미국과 공군력 증강을 위한 협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 공군에 F-86F 전투기 1개 비행단과 C-46D 수송기 1개 전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55년 6월 20일 F-86F 전투기 5대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제트화 시대는 그 서막을 열게 되었다.

6·25 전쟁 당시 '썩썩이'로 불리며 제트기로서는 최초로 MIG기와 첫 공중전을 벌였던 F-86F 전투기는 신상옥 감독의 공전의 히트작인 '빨간 마후라'와 곡예비행팀인 블루 세이버(Blue Sabre Team 1959년부터 1966년)를 통하여 한국 공군의 상징으로 그 위용을 떨쳤으며 1990년 일선에서 퇴역하였다.

## ● UH-1B

UH-1B는 BELL 204를 군용으로 개조한 2개의 회전날개를 가진 다목적 헬리콥터이다. 1962년 최초로 비행하였으며 월남전에서 공격용 헬기 및 무장 호송기로 운용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UH-1B 헬기를 1977년 7월 12일에 도입하여 작전지원, 공수낙하훈련 및 대민 지원 등의 임무에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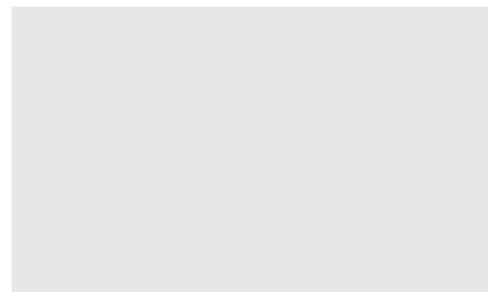
● **CN-235M**

1973년 도입하여 운용을 시작한 C-123 수송기가, 장기간 운용에 따른 항공기 노후화와 빈번한 기체결함,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는 1989년 12월에 C-X사업(중형수송기 도입사업)에 대한 소요제기를 통하여 스페인 CASA社의 CN-235M-100 수송기와 이탈리아 Aeritalia社의 G-222 수송기를 도입 대상기종으로 선정하였으며, 1992년 4월에 CN-235M 수송기 도입을 최종 결정하였다.

스페인의 CASA社와 인도네시아의 IPTN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CN-235M 수송기는 비정규진, 탐색구조, 특수지역 병참공수 등의 특수임무능력과 2,060NM의 항속거리에 48명의 병력, 13,200LBS의 화물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형수송기로서 우리 공군은 1994년 1월 12일 1차분을 도입하였다.

이후 CN-235M 추가도입은 인도네시아와의 방산물자 상호 대응구매에 따라 IPTN社로부터 이루어졌으며, 현재 우리 공군은 스페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총 00대의 CN-235M 수송기를 도입하여 무기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항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C-130H 수송기와 함께 공군의 주력 수송기로서 성공적인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㉞

- ① F-86F 전투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1955)
- ② F-86F 전투기 무장전시
- ③ F-86F 전투기 연료보급
- ④ F-86F 전투기 무장장착
- ⑤ F-86F 전투기 곡예비행팀(1966)
- ⑥ F-86F 전투기 명예퇴역식(1990)
- ⑦ UH-1B의 지상전시
- ⑧ 제233구조비행대대 파견대에서 거행된 83-1차 UH-1B 전환교육 수료식
- ⑨ ⑩ ⑪ 제5전술공수비행단에서 열린 CN-235M 수송기 도입식
- ⑫ 도입식 후 김홍래 참모총장은 CN-235M 시승 및 기념촬영 실시함.



## 제1·3대 참모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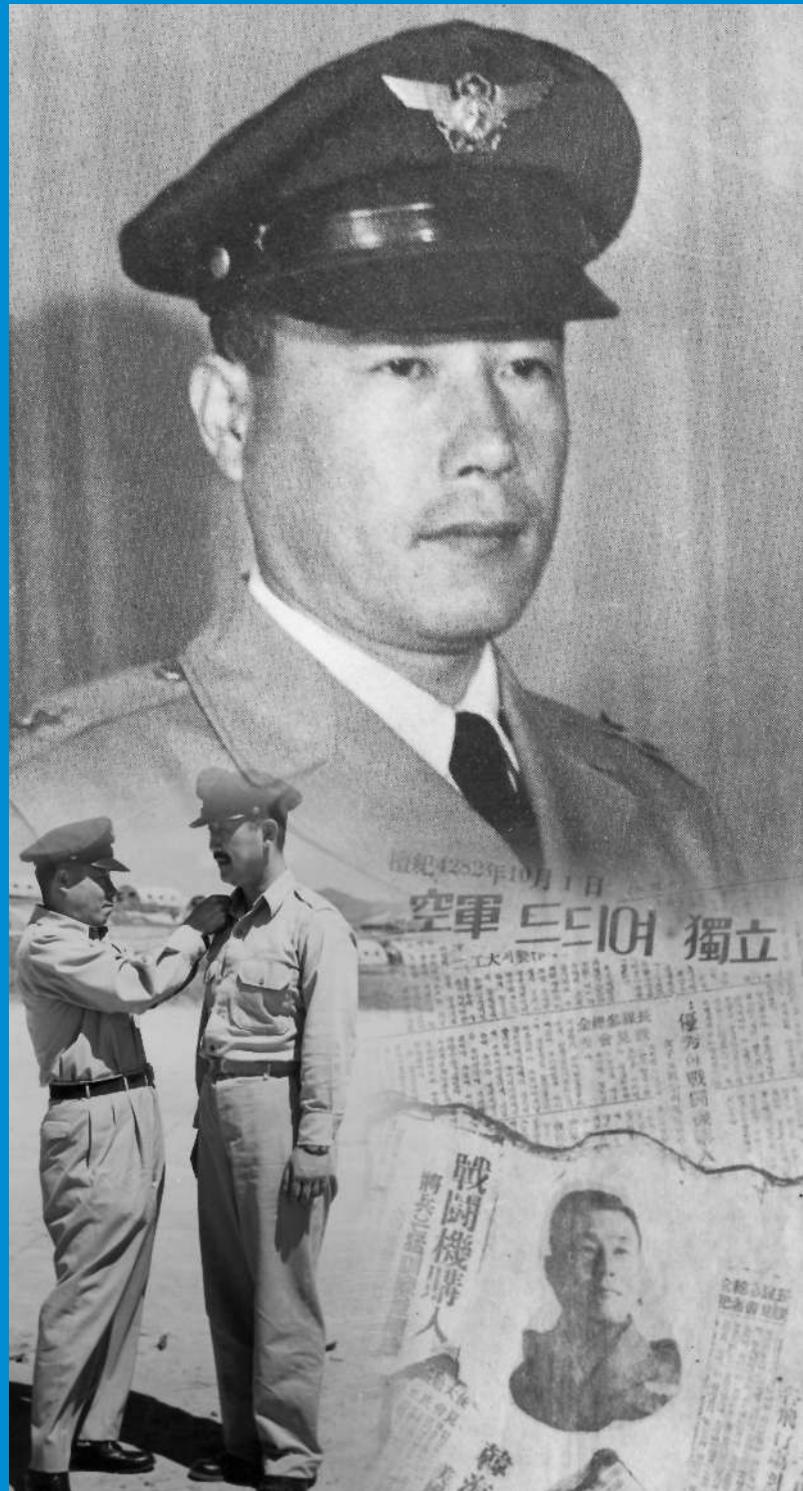
## 공군 창군의 주역 김정렬 장군

글 이문호 | 공사총동참회 사무총장, (예)준장

**공**군창군 60주년을 맞았다. 우리 공군은 최신에 전투기인 F-15, F-16 등으로 무장한 막강 전력으로 성장하여 우리 조국의 영공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현대전에서 공군은 전쟁역제의 핵심이고 전시에는 전승의 주역이라는 것은 걸프전 이후의 전쟁에서 지상군 전선이 형성되기도 전에 공군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력의 발전은 1948년 통위부 소속으로 창설된 항공부대가 육군 예하 항공사령부를 거쳐 1949년 10월 1일 공군으로 독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은 김정렬 장군을 포함한 창군 7인이 담당하였다. 미 공군도 육군에서 독립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던 1949년 당시 김정렬 대령은 '장차전은 입체전으로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국군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국방안전을 기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군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당시 육군을 포함한 주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불과 1,600여 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로 공군 독립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김정렬 장군은 언제나 변치 않는 것은 푸른 하늘에 대한 꿈과 조종에 대한 향수라면서 비행기만 타면 앓던 병도 낫더라고 말하던 영원한 조인(鳥人)이었다. 그 분이 걸어온 길은 오로지 우리 공군과 나라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일관한 길이었다. 일찍부터 그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뻗어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하늘에 눈을 돌려 조종사의 길을 택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 치하에서 일본 육사를 나와 비행기량 숙달에 전념하던 그는 광복을 맞이하자 귀국하여 항공계의 조선인 선각자들과 함께 공군창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군을 창설하였다. 선구자이고 개척자였던 당시 김정렬 대령은 초대 공군총참모장의 중책을 맡고 무엇보다도 체제정비와 전비태세를 갖추는 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 특히 "한국인은 모두가 항공인이 되자"고 호소하면서 범국민적인 애국기 헌납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와중에도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단숨에 우리 힘으로 10대의 연습기를 갖추 수 있었다.





얼마 후 6·25가 발발하자 우리 조종사들은 이 건국기를 타고 출격하여 우리 공군의 존재와 투지를 보여 주었고, 기습남침으로 당황하고 있던 우리 국민과 국군의 사기를 드높였다. 창군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6·25라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일면 전투, 일면 훈련에 임하여 위기를 극복하였고, 1952년 10월 후진양성과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겠다는 일념으로 직접 이승만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올려 스스로 총참모장 직을 이임하였다.

역대 참모총장 연설집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장군은 상소문에서 “공군 총참모장 직을 임기제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심사숙고한 결과 지금 현 직책에서 해면(解免)되는 것이 최선의 시기라고 판단되고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둔다 함은 남아평생의 자량인만큼 부디 자이를 일층 수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면서 “지와 덕을 겸비한 최용덕 장군을 총참모장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다.

그 후 다시 최용덕 장군의 후임으로 제3대 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되자 공군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투기 시대를 열고 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전술공군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국방부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겨레와 나라를 위해 잠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분이였다. 특히, 국방부장관 시절 3·15 부정선거로 촉발한 4·19 의거 때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극도로 정국이 혼란할 때인 데도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 장관마저 인의 장막을 치고 진실을 외면할 때,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을 말하면서 하여야를 건의하여 학생들의 희생을 줄인 것도 김정렬 국방부장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또 일류 기업이던 삼성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초창기 거의 빈손으로 출발했던 우리 공군이 오늘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필승의 정예공군으로 일취월장하게 된 것은 바로 김정렬 장군과 같은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크나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

이곳 여의도 공원은, 한국공군 창군 당시 우리 공군의 비행부대가 최초로 주둔했던 역사적인 장소로서, 우리 공군은, ....., 6·25전쟁 발발 초기에 공군 요청으로 육군병기창에서 제조한 폭탄과 수류탄으로 적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출격하였습니다.

공군창군 60주년 기념탑에는, 오늘의 공군을 있게 한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는 물론, 대한민국 공군의 조국 영공 수호에 대한 확실한 다짐과 정예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 '09년 9월 22일 '창군 60주년 기념탑 제막식' 건립 경과 보고 중에서 -

어려운 여건에서 공군 독립을 일궈냈던  
선배들의 창군 정신을 계승하고,  
정예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할 시대적인 소명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09년에 임관/입교한 특별대담자 5인 -

- 자세한 기사는 반대편 1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이윤식 지음

# 조국의 별 최/용/덕

▣ 중령 강성구 | 재경공보실장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역사를 홀대하는 민족은 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왔습니다. 정훈장교로 공군에서 청춘을 보낸 저는 병과의 특성상 늘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가치나 철학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정확히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공군이 봉착해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원을 파고들면 그 마지막엔 역사인식의 부재가 첫 번째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역사인식을 함께한다는 것은 구성원을 '상상의 공동체'로 묶어내어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조직문화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개인사에서조차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조들의 삶의 궤적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하는 집안은 물질적 유산이 아무리 풍족하다 해도 빈곤한 정신적 유산으로 인해 천박한 삶을 살게 되기 쉽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공군 창군의 주역이자 2대 참모총장을 지내신 최용덕 장군에 대한 이해는 창군 60주년을 맞는 우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창군을 주도했던 분들의 상당수가 일본군 출신인 가운데 중국군 장교이자 광복군 지휘관으로 항일독립투쟁을 하셨던 최용덕 장군이 우리 공군의 창군을 주도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1898년에 태어나신 최 장군님은 일제에 침탈당하는 땅국의 과정을 지켜보고 열다섯 어린 나이에 중국으로 떠나 평생을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중국 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보정비행학교(중국공군군관학교 전신)에서 조종술을 익힌 최 장군님은 중국 공군의 창설멤버로도 참여하여 중국 공군사에도 큰 족적을 남기신 대항공인이셨습니다.

30여 년 간 중국 대륙을 떠돌며 한결 같은 항일투쟁으로 살아오신 최 장군님의 위대한 삶은 해방 후에 우리 공군을 창설하면서 더욱 빛이 납니다. 미 군정이 조선경비대를 창설하면서 내건 조건은 전력에 상관없이 모든 입대자가 병사교육과정엔 입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군과 일본군에서 지휘관 생활을 했던 일곱 분의 공군 창설 주역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지요. 모두 이러한 미 군정의 행태를 성토했고 '이럴 바에는 모두 때려치우자'는 목소리가 커갈 때 이들보다 스무살이나 연배이고 중국군과 광복군의 장성출신인 최 장군님은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정신을 역설하며 "조선의 항공인들이 모두 우리만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고 먼 장래를 보고 병사교육에 입대할 것"을 설득하여 이들과 함께 말단 병사의 계급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만약 최 장군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 공군은 아마도 60년대나 되어야 만들어졌을 겁니다.

또한, 그분은 공군가, 공사교가, 공사심훈, 공군의 결의 등을 손수 지으시어 우리 공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신적 가치와 철학을 기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쓰신 많은 연설문이 '하늘의 개척자'라는 소책자로 군사편찬과 자료실에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데 얼마나 깊고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지 6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으로 읽어 보아도 많은 감동을 얻게 됩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초심은 늘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공군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최용덕 장군님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롭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가 최용덕 장군이 평생을 가슴에 품었던 '소중한 꿈'이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A+

# Just call Me “황로”

글·사진 준위 현동선 | 제20전투비행단

지태를 뽐내고 있는 황로

“**활**주로와 유도로 사이의 배수로에 백로가 많이 앉아 있습니다. 두루미가 앉아 있습니다. 황새가 앉아 있습니다.”라는 조류퇴치반 감시요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의 조류관련 그룹채널을 통해서 공개 방송이 되었다.

세상에! 그 귀한 천연기념물 조류인 두루미와 황새가 활주로 주변에 들어왔다고? 놀라서 새가 있다고 하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천연덕스럽게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가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서 날아나는 황로무리가 보였다.

늘 조류감시와 퇴치업무를 하는 병사들도 여름철 흔하게 볼 수 있는 황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쩌다 숲과 들에서 새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구분이 쉽지 않으리라.

새들의 종류가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인들은 변명하지만 외형적인 특징을 알려주고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많이 놀라곤 한다. 궁금증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나의 성격이 괴팍한 것일까? 아니면 병사들이 새를 식별하는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관심부족이다. 황로는 여름철새이지만 두루미와 황새는 겨울철새로서 여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비행장 내에서도 전혀 볼 수가 없는 귀한 조류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황로와 다른 새를 구분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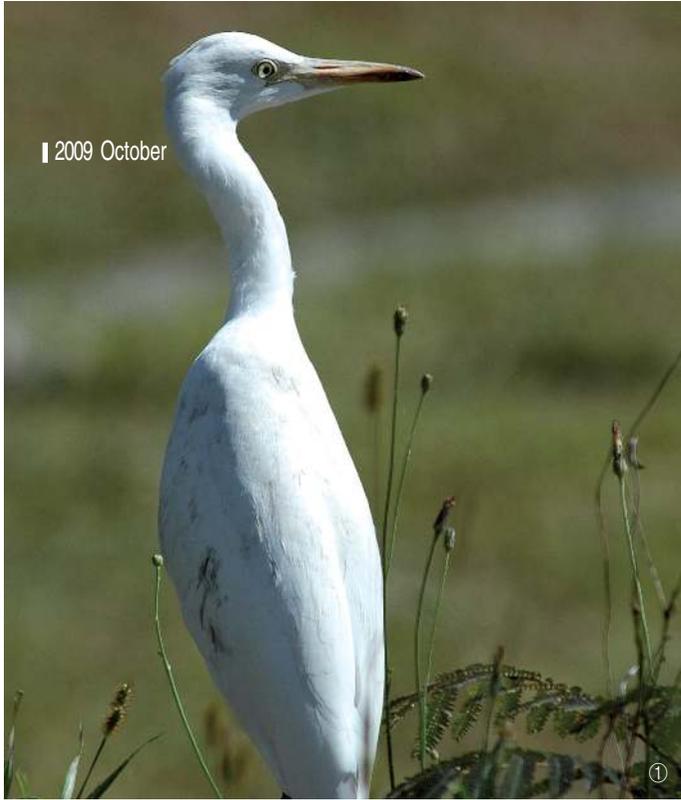
지난 봄, 서울에서 탐조활동을 온 초등학생이 씨레질을

하고 있는 눈 속에서 황로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진흙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미꾸라지를 잡아먹더니 백로의 하얀 깃털이 황색으로 물들었어요.’ 하는 것이었다. 순간 그 어린학생의 상상력에 감탄을 하였다.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한편으로는 그 초등학생의 조류 식별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 수 있었지만 순수함과 상상력에는 갈채를 보냈다. 비록 틀리기는 했지만 황로의 깃털이 황색인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새로운 발견이 시작되는 것이리라.

## 형태

병사들이 쇠백로와 혼동하는 황로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 암컷과 수컷의 깃털 색이 서로 비슷하여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암수 모두 머리와 목 부분은 밝은 황색과 흰색이 섞여 있으며 겨울에는 흰색이 강한 편이며 눈앞은 어두운 황색 피부가 선명하게 보인다.

등, 어깨 깃, 허리, 꼬리 깃은 흰색이나 번식 시기에는 등과 어깨 깃이 붉은색이며 길이 170~200mm의 하얗고 기다란 예쁜 번식깃털이 꼬리 근처까지 자라서 암수 서로가 자신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사랑을 표시한다. 부리는 갈끔한 황색이며, 홍채도 황색이고, 다리는 어두운 갈색, 또는 옅은 갈색으로 되어 있어서 검은색 부리를 가진 쇠백로와 구분



- ① 활주로 잔디에서 먹이를 찾는 황로
- ② 동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황로
- ③ 황로와 백로
- ④ 조류퇴치요원들이 폭음탄을 쏘자 활주로 근처 소나무로 피해 있는 황로 가족들
- ⑤ 철조망에 앉아서 데이트를 즐기는 황로 커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특히 혼동이 오는 것은 봄에는 황로의 특유 번식 깃이 나오므로 멀리서 보아도 황로의 특징을 알 수 있으나 태어난 지 일 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새들은 깃털색이 모두 흰색이라는 것이다. 생후 1년이 지나야 어미를 닮은 아름다운 황색이 나오게 되는데 황로의 어린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쇠백로와 혼동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백로에 비해서 통통하고 부리의 색이 멀리서 보아도 선명한 황색이기에 여름에는 부리의 색상을 보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 생태

10여 년 전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개체수가 적은 여름새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전역의 낮은 산에서 많은 수가 번식을 한다. 5월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며 이 시기에는 모를 심기 위해서 평탄작업을 하는 논에서 쉽게 눈에 띈다.

얼핏보면 쇠백로와 비슷하나 목이 굵고 몸집이 해오라기처럼 통통하다. 평소에는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없으나 번식기에는 둥우리 부근의 나무 위에서 '고아~~' 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은 소리를 낸다.

새들에게도 질서가 있어서 왜가리처럼 덩치가 크거나 민

물가마우지처럼 사나운 새가 나무의 윗부분을 차지하고 차례대로 아랫부분으로 둥지를 지어서 번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여름 서산의 야산에서는 황로들이 덩치가 큰 왜가리나 중대백로들에게 밀려서 아주 작은 소나무나 단풍나무에 둥지를 만들고 번식을 하는 것이 많이 보였다.

모를 낸 논에서의 먹이 활동은 생각보다 어렵다.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갓심어 놓은 작은 벼들을 마구 꺾어 놓는 바람에 농민들이 매우 싫어한다. 결국 농민들이 어린 벼를 보호하기 위해서 논에 어류나 양서류들이 살지 못하도록 살충제를 강하게 뿌리면서 새로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황로는 번식이 끝나면 남쪽지방으로 이동을 할 때까지 모두 모여서 커다란 무리를 이룬다. 많을 때에는 500여 마리씩 무리를 지어서 활주로 주변의 잔디에 들어와서 먹이 활동을 하며 잔디를 새하얗게 수를 놓기도 하고 적게는 수십 마리씩 모여서 활동을 하기도 한다.

몹시 영악스러워서 퇴치 활동을 시작하면 활주로 반대방향으로 날아가서 앉았다가 쫓아내면 다시 먼저 있었던 곳으로 날아가기도 하고 활주로나 조금 떨어진 숲 속의 커다란 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조류퇴치 요원들이 다른 곳을 가면



⑥ 관사 근처의 도로까지 와서 먹이를 찾는 황로의 어린새  
 ⑦ 쇠백로와 함께 소나무에서 번식 중인 황로  
 ⑧ 조류퇴치요원들을 피해서 기지 울타리 밖에서 먹이를 찾는 어린 황로

잡싸게 잔디에 날아와서 조류퇴치반 요원들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여름철 비행안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새이다.

**퇴치활동**

이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잔디밭이나 풀밭엘 가보면 메뚜기목의 곤충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활주로 주변의 잔디에서는 주로 달팽이나 메뚜기의 성충을 잡아 먹는다. 결국 이 새들이 기지나 공항에 들어와서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곳에 황로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이 많다는 증거이다.

새들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충제 선정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잔디면에는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곤충들이 서식을 하므로 곤충이 출몰하는 시기에 알맞은 농약을 뿌려야 하는데 계절에 관계없이 똑같은 약제를 살포하여 오히려 곤충들의 면역력만 키울 수 있다.

공군에서는 다행히 시기별로 곤충조사를 하여 농촌기술센터와 협조한 후 시기에 맞는 살충제를 구매하여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양의 살충제를 살포하여 보다 체계적인 먹이사슬차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친화적으로 농약의 농도를 연하게 하여 살충제를 살포하다 보니 곤충들이 모두 박멸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결국 메뚜기목의 곤충들을 먹으러 황로들이 지속적으로 활주로 주변 잔디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무선조종항공기이다. 비행 전 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퇴치를 한 후 잔여 황로들은 기동퇴치반 요원들이 공포탄을 이용하여 퇴치를 한다면 빠른 시간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황로를 포획하지 않고 퇴치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무선조종항공기 동호회들이 많이 결성되어 있어서 일반 공항에서는 그런 동아리회원들과 잘 협의를 하여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사전에 비행안

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무선조종항공기를 이용하여 조류를 퇴치하려고 한 것이 잘못 조종하면 오히려 새보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쇠백로와 구분이 잘 안되어 혼동을 했던 조류퇴치반 병사,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새가 많은 곳에 탐조를 떠나는 학생들은 이제 어디서든 황로를 만나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앞으로는 황로를 만나면 절대 두루미 또는 황새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이름을 말해 주세요. 새들이 무시한답니다. 자신들의 이름도 모르면서 퇴치를 한다고... 그리고 논에서 먹이를 잡던 황로를 보고 백로가 진흙이 잔뜩 묻어서 색이 변했다고 하던 초등학생도 앞으로는 꼭 황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겨울철새가 벌써 도래하였습니다. 서산의 천수만에는 올해도 천수만 세계겨울철새축제(10월 23일부터 11월 22일)를 엽니다. 외국과 국내의 조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오는 수많은 겨울새들을 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하지만 비행안전을 책임지는 조류감시 요원들은 이때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여름철새들이 먼 남쪽나라로 떠나기 위해 무리를 커다랗게 이루어서 활동을 하는 시기로 겨울철새와 여름철새 모두를 감시하고 퇴치해야 하는 매우 분주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새가 모이고 철새들의 활동이 일정치 않은 시기의 비행안전은 조류퇴치반 여러분들의 정확한 감시와 정보 그리고 신속한 퇴치로 보장이 됩니다. 우리 전투기의 비행안전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류퇴치반 여러분의 이마에 흐르는 구슬 같은 땀방울과 굳건한 노력이 바로 우리 공군의 밝고 소중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

##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 가면 속에 감춰진 러브 스토리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돌아왔다. 지난 2001년 24만 관객을 유치해 국내 최다 관객을 기록한 지 8년만이다. 이번 공연을 제작하는 데만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고, 1,000여 명이 넘는 배우들이 오디션에 응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그만큼 국내 뮤지컬의 역사를 새로 쓸 준비를 마쳤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주인공은 3명이다. 팬텀, 크리스틴, 라울이 바로 그들이다. 팬텀이 가면 속의 주인공이다. 천재지만 콤플렉스 덩어리에 잔인하면서도 연민을 느끼게 하는 독특한 캐릭터이다. 크리스틴은 팬텀에 대한 존경과 사랑, 아버지를 여읜 슬픔을 지닌 소프라노이고 라울은 사랑을 위해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귀족 청년이다. 크리스틴에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팬텀과는 사랑을 놓고 싸운다.

이 세 명의 러브스토리는 현재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웨스트엔드,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만 공연 중이다. 200억 원대 무대를 새로 제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장기 공연이 열리고 있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 개의 세트가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순회한다. 전 세계 4명의 오페라의 유령 중 한 명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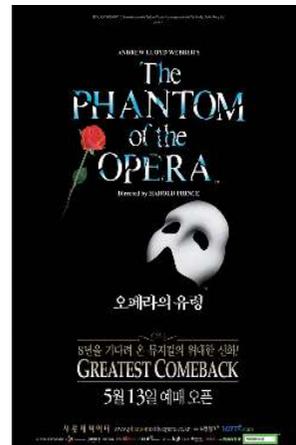
스토리뿐만 아니라 웅장한 사운드와 배우들의 노래가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을, 감동으로 찾아온 가면 속 외로움을 만나보자.

**기간** : 9월 23일 ~ 2010년 8월 8일

**장소** : 서울 샤롯데씨어터

**가격** : VIP 12만, R 10만, S 7만, A 5만, B 4만

**홈페이지** : [www.phantomoftheopera.co.kr](http://www.phantomoftheopera.co.kr)



### ABBA는 가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왔다! 뮤지컬 <올숙업>

뮤지컬 <맘마미아>가 ABBA의 노래로 만들어졌다면, 뮤지컬 <올숙업>은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로 만들어졌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명곡 24곡이 뮤지컬 마니아층이 두터운 20·30대 관객은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공연장의 문턱을 낮췄다.

뮤지컬 <올숙업>은 음악과 춤, 애정행각을 금지하는 정숙법을 가진 동네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상황은 정숙법과 반대로 진행돼 상황은 복잡하게 얽힌다. 이 때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이 사랑과 열정, 즐거움의 매개가 된다.

비틀즈의 존 레논은 “엘비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고, 빌 클린턴은 “내 생각에는 부시는 엘비스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게 그의 또 다른 잘못이다”고 평가했다. 그만큼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은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은 지 30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라이브로 만날 수 없는 그를 뮤지컬로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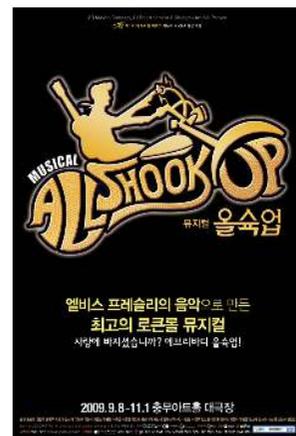
쌀쌀해진 날씨를 핑계 삼아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뮤지컬 데이트를 신청하기에 안성맞춤인 이번 공연이야말로 그동안 못 다한 효도를 감동으로 대신할 수 있는 멋진 기회이다. 연인과 보고 싶다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한두 곡쯤은 미리 외워 쉬는 시간에 흥얼거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간** : 11월 1일까지

**장소** : 서울 충무아트홀 대극장

**가격** : VIP 12만, R 9만, S 7만, A 5만

**홈페이지** : [www.allshookup.co.kr](http://www.allshookup.co.kr)



# 신종플루 예방에 도움을 주는 네티수련과 활자세

글 이희주 | 홍익요가협회장

사진출처 : 도서출판 홍익요가연구원



네티 도자기

어느덧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가을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가을! 이 말은 비단 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는 반면 농사일은 많아 체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딸리게 마련이지요. 그러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면 먹을 것도 풍성해지고 날씨도 서늘하여 식욕도 솟으니 사람들도 이때 잘 먹고 기운을 내야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시사철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도 운동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또 여름내내 에어컨 속에서 살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가을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신종플루까지 가세하여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신종 질병들의 문제가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생겨나는 이런 신종질병들뿐만 아니라 가난의 상징으로 여겼던 이가 강남의 초등학교생들의 머리에 퍼지기도 하였고,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단언했던 페스트가 올 여름엔 중국에 나타났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백신의 개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부터 국가, 사회, 개인적인 차원까지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

원에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요가수련 중에는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우리 몸의 면역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크리야(kriya)수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 내부와 호흡기계를 튼튼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네티(neti) 수련이 특히 필요한 때입니다. 네티 수련은 잘라 네티(jala neti)와 수트라 네티(sutra neti)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초보자들에게는 물을 이용한 잘라 네티를 권합니다.

잘라 네티는 아주 쉽게 설명해서 물을 한쪽 콧구멍으로 집어넣어 반대쪽 콧구멍으로 빼내는 방법인데 대개 이를 위하여 고안된 네티 도자기를 사용합니다. 네티는 단순히 콧구멍만을 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귀, 눈, 목 등 얼굴 전체의 속을 정화시켜 줍니다. 잘 알다시피 코와 귀는 가느다란 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얼굴에는 해부학적으로 빈 공간인 부비동(副鼻洞)들이 있는데 물과 압력에 의해 이 속의 노폐물까지 빼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염이나 축농증 등 코와 관련된 질병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꾸준히 하면 심폐기능이 점점 좋아집니다. 네티의 효과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숨쉬기를 바르게 하면 폐활량이 증가하여 몸속에 필요한 산소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면역력과 자생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

서 네티는 요가에서 본격적인 호흡 수련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수련으로 여깁니다(올바로 숨 쉬는 방법에 관해서는 본 지 2007년 4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와

더불어 기관지와 폐를 비롯한 호흡기계통의 건강을 지켜주며 면역성을 높여주는 활 자세를 함께하면 더욱 건강한 가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Af

### 〈 활(弓) 자세(Danurasana) 〉

이 자세는 마치 활처럼 몸을 둥글게 들어올린 모양을 본 따서 지은 이름이다.

#### ◎ 방 법

1. 배를 대고 엎드려 누워 두 무릎을 구부려 양손으로 발등이나 발목을 잡는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는다.
2. 숨을 내쉬면서 머리와 상체 그리고 잡은 두 다리를 최대한 높이 들어올려 온몸이 활과 같이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을 이루도록 한다. 고르게 숨 쉬며 할 수 있는 만큼 버틴다.
3.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천천히 두 다리를 내린 뒤, 손을 풀어 엎드린 채로 잠시 휴식한다. 할 수 있으면 2~3번 되풀이해도 좋다.



#### ◎ 효 과

1. 가슴을 확장시켜 숨쉬기를 개선시키고 폐활량이 좋아진다.
2. 척추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길러 요통, 가벼운 디스크, 어깨 결림, 굽은 어깨를 바로잡을 수 있다.
3. 배의 근육을 늘리고 복부 내장기관을 쭉 펴주어 심장, 허파, 위, 대장, 특히 비뇨생식기 계통이 편안해진다.
4. 온몸의 체지방과 군살을 없앤다.
5. 자신감과 인내심을 길러준다.



#### ◎ 참 고

1. 팔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하체의 힘으로 들어 올려야 하며 팔은 무리하지 않게 보조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으로 한다.
2. 사전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하며, 특히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주의해서 한다.

사진출처 : <요가,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이희주 저, 물병자리)

# Quiz

월간 「공군」 10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10월 31일까지

1. 2030년 이후 작전사령부 예하에 전투사령부, 기동사령부, 방공포병사령부 및 우주작전부대와 항공우주통제사령부를 통합하여 신설할 예정인 것은?
2. 공군 창군 주역 7인 중 한 명으로 공군 1·3대 참모총장을 지낸 인물은 누구인가?
3. 지난해 9월 공군에서 최초로 선발한 우주분야 정책 및 전력기획 업무 등을 전담할 우주전문인력은 총 몇 명인가?

## 〈월간 「공군」 독자들을 필자로 모십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309  
정훈공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tribune44@gmail.com](mailto:tribune44@gmail.com)(인터넷)  
[tribune44@af.mil](mailto:tribune44@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935/042-552-6935

### ※ 8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ACMI
2. 로테오 2009
3. T-33A 제트훈련기

퀴즈 당첨자

인천시 연수구 김도식  
부산시 기장군 이남원  
대구시 수성구 송재하  
대구시 달서구 장하숙  
서울시 동작구 고태호  
강원도 태백시 양철윤

간첩·테러범·방산스파이 신고는 국군기무사령부  
(☎ : 1337, [www.dsc.mil.kr](http://www.dsc.mil.kr))  
신고하는 1등 국민에게 337 박수를!



# 월간

Monthly Magazine Air Force



# 월간

Monthly Magazine Air Force



# 월간

Monthly Magazine Air Forc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창군 60주년











표지설명 : 60년 전,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됐던 여의도에 세워진 창군 60주년 기념탑 제막식

표지사진 : 상사 김경률 | 공군본부 공보과

### 공군 October 2009 No.376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일(통권 제376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장(진) 김규진

편집자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소령 라동섭

특별편집위원 | 대위 강민정, 중위 고낙일, 중위 안기성, 중위 한성규

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 CONTENTS

# 2009.10

www.airforce.mil.kr Vol.376

- 04** 참모총장 기념사 \_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 월간 『공군』 특집호에 부쳐
- 06** Happy Birthday! ROKAF \_ 60주년 축하메시지
- 10** 공군예비역 단체장 특별 인터뷰 \_ 향후 60주년은 필승의 공군, 미래 항공우주군
  - \_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자랑스런 공군을 만들자
  - \_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지켜왔다는 사명감과 긍지는 우리 공군의 힘
  - \_ 끈끈한 전우애로 무궁히 발전하라
- 14** 최강의 공군 항공전력 소개 \_ 엇지 있게 더 강력하게! 대한민국 공군, Power Air Force!
- 18** 참모총장 스케치
- 20** 창군 60주년 특집 9 \_ 10월의 공군역사
  - \_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9
  - \_ 공군 창군의 주역 김정렬 장군
- 26** At a Glance
- 27** 책마을 \_ 조국의 별, 최용덕
- 28** Bird Alert! \_ Just call Me “황로”
- 31** Preview \_ 10월의 문화행사
- 32** 우리, 건강합시다 \_ 신종플루 예방에 도움을 주는 네티수련과 활자세
- 35** 창군 60주년 기념엽서



##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

# 월간 『공군』

## 특집호에 부쳐

우리 공군은 “현대전은 입체전이며 공군력 우세가 필수적”이라는 신념에 찬 선배전우들에 의해 1949년 10월 1일 창군 되었습니다. 60년 전 우리 공군은 불과 1,600여 명의 병력과 20여 대의 연락기 및 훈련기로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창군 당시 맨주먹으로 시작하시피 한 공군이 이제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인 F-15K와 국산훈련기인 T-50을 운영하는 최정예·최첨단 강군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오늘이 있기까지 선배전우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 도전을 극복해 왔습니다. 또한 6·25전쟁이 발발하자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자 채 1주일도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F-51 무스탕 전투기를 주일 미군으로부터 직접 인수해 현해탄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기지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오로지 조국의 영광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적진을 향해 출격했습니다. 당시 우리 공군의 선배전우들은 “일면 전투, 일면 건설”의 기치아래 휴전 당시까지 수많은 전투에서 목숨을 담보로 싸워 우리의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선배들의 위국헌신의 신념을 본받아 조국의 하늘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21세기는 우리 공군이 본격적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항공우주시대로 미래의 우리 조국은 지금보다도 더 절실하게 강한 공군을 요구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명손실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이야말로 인간존엄의 가치관이 보다 강조될 미래 전쟁(clean war)의 핵심 전투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래전은 우주로까지 확장된 공간과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 환경하에서 수행될 것이므로 신속성과 정밀 타격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공군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 질 것입니다.

21세기는 하늘과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올해 창군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의 반석 위에서 이룩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우주로 비상하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군이 국가 보위의 핵심전력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한몸에 받는 “선진 정예화된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공군은 미래전에 부합한 네트워크 기반의 자주적 항공우주작전 수행 전력을 구비해야 합니다. 효과중심의 항공우주작전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와 군수지원 체계, 친환경 군사시설 역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곧 미래라고 했듯이 실전적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경쟁력있는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공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군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미래를 준비해 나갑시다.

더불어 공군 비전 실현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 위기 시

“21세기는 하늘과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은 올해 창군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의 반석 위에서 이룩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우주로 비상하는 새로운 6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육·해군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 군과의 정보 공유는 물론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합동성을 강화하고, 가용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며, 노력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로 전승을 조기에 달성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기저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민의 성원과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군인 모두는 안정된 공군력을 운영하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이 원하면 언제 어디에든 찾아가는 믿음직한 공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가운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공군, 하나되는 강한 공군’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아 공군 전 장병이 일치 단결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로 힘차게 비상합시다.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 특집호 발행을 전 장병과 함께 축하합니다. 

2009. 10. 1

이 계훈  
공군참모총장 대장 이 계 훈



# 공.군.창.군. 60주년 축.하.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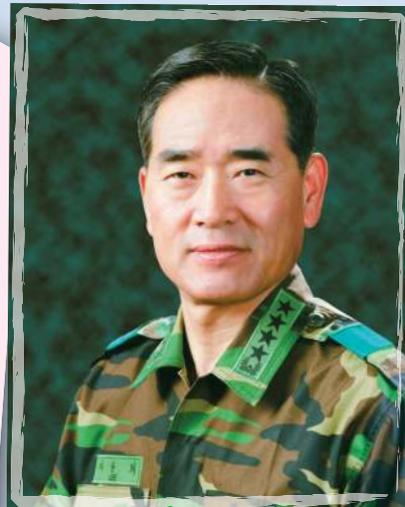


국방부장관 김 태 영

친애하는 대한민국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창군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영공방위 임무원수에 헌신진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미래 전장은 하늘을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선진 정예화된 강한 공군'을  
 기치로 가일층 분발하여 '항공우주군'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 창군 60주년을 축하하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합동참모의장 육군대장 이 상 의

친애하는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조국 영공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군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공군 창군 60주년」을 함참 전 장병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60년 전 훈련기 20여대로 창군하여 한국전쟁에서 맨손으로 폭탄을 투하하며  
 조국의 산하를 지켰던 자랑스런 공군이 이제는 최첨단의 전투기와 전투기량으로  
 무장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우리 공군의 창군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공군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힘찬 비상을 지원하겠습니다.





### 육군참모총장 대장 한 민 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창군 60주년을 육군 전 장병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빨간 마후라의 투혼과 불굴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공군이 이제훈 공군참모총장님의  
 탁월하신 지휘 아래, 4대 핵심가치를 구현하고  
 항공우주군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가기를 기원합니다.

### 해군참모총장 대장 정 옥 근

영공방위의 핵심전력인 공군 창군 60주년을  
 해군·해병대 전 장병 및 군무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공군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라는 4대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미래전장을 주도할 '항공우주군'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 미국 공군참모총장 Norton A. Schwartz

대한민국 공군의 창군 60번째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지난 1949년 용기, 결의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미 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은 연합 작전, 동일 항공기 기종,  
 그리고 공유한 가치 등의 오랜 역사를 통해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0년, 양국 공군간의 상호 동맹, 우정, 그리고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6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프랑스 공군참모총장 Jean-Paul Paloméros**

한국 공군에 있어 기념비적인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큰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60년 전 결단과 용기로 한국 공군이 태동하여 창공의 정신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최고 수준의 길을 닦아왔습니다. 지난 60년간 한국 공군은 강력한 선배들의 전통과 가치를 존중해왔고 높은 현대적인 기술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래 어떠한 도전이 다가올지라도 한국 공군의 훈련 능력, 기술 수준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욕은 모든 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60주년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영국 공군참모총장 Stephen Dalton**

2009년은 대한민국 공군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영국 공군의 전 구성원을 대표하여 대한민국 공군 60주년 창군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더욱더 복잡해지는 세계 안보문제에 있어 상호방위 난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은 다국적 작전, 국제치안보조부대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행했던 선의의 활동들, 그리고 아덴 만의 병력 배치 등의 사례는 동맹국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군력의 활용은 전략적 사고에 있어 효과적인 항공력이 모든 작전에 있어 필수적인 만큼 가장 먼저 고려가 될 것입니다. 한국 공군과 영국 공군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하며 국제 안보와 국가방위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60th



**독일 공군참모총장 Klaus Peter Stieglitz**

지속적인 적응의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공군의 목표는 군 전체 전력의 작전대응태세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은 공통된 관심사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공방어 체계 구축에 대한 독일 공군의 지원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함부르크의 연방 독일군 Fuehrungsakademie에 개설한 국제 지휘관 참모 과정(공군의 정규과정)에 대한민국 공군장교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독일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창군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독일 전 장병들의 진심어린 인사를 보냅니다.



**일본 항공마로장 호카조노 켄이치로**

대한민국 공군 창군 60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지난 60년 동안 여러 차례 고비를 맞이하였으나  
애국심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 정예화된 공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금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공군이 해야 할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 공군의 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군 60주년을 계기로 한국 공군이 한층 더 도약하길 바라면서  
축하의 말을 대신하겠습니다.

Anniversary!

**공군주임원사 김재환**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부사관과 병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항공우주군을 향한 새로운 6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부사관 및 병사 한명 한명은  
하늘같은 넓은 가슴으로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  
주어진 임무에 가일승 매진하여 항공우주군에  
걸맞은 기술훈으로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공군 파이팅!! 부사관 및 병사 파이팅!!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창군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엿이 환갑을 넘은 길은 연륜을 가지게 된 공군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더욱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제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하늘과 우주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공군 파이팅!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윤은기**

공군 창군 6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위대한 업적을 세계사에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군은 60년 동안 국방의 초석이 되었고  
인재배출의 요람이었습니다.  
공군 출신임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선진국 도약을 이끄는 선진공군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수 박현빈**

공군의 60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가장 선진적인 병영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공군에서  
군생활을 마친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공군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군 창군 60주년을 축하합니다.



## 향후 60주년은 필승의 공군, 미래 항공우주군

한 주 석 | 공군전우회 회장/20대 공군참모총장

글 중위 한성규 | 특별편집위원 사진 상사 고태호 | 복지단

지난 9월 21일 공군전우회 집무실에서 영원한 공군인 한주석 공군전우회 회장을 만났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매순간 그의 공군을 향한 사랑과 식지 않은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60주년을 축하하기에 앞서 현역들을 포함한 모든 공군인들이 벌써 다음 60주년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거의 영광과 함께 앞서가는 미래의 공군상은 이들이 있어서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

**Q** 공군 창군 60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 한 마디만 부탁드립니다.

**A** 해방 후 국가가 한창 어려울 때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되었습니다. 창군 당시 비행기도 없었고, 단지 순수한 열정만으로 대한민국 공군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최고의 전력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공군으로 거듭났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모두 선배, 후배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입니다. 공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창군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Q** 38년간 공군에 복무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A** 매순간이 특별했지만, 특히 '98년 미국 워싱턴에서 공군무관으로 3년간 생활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은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에어쇼에 한국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태극기가 달린 차에서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대한민국 공군을 소개하는 스피치를 했습니다. 이 순간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릴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Q** 공군 발전을 위해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A** 60년 발전의 역사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다음 6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군은 개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군입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재의 확보 양성이 핵심입니다.

**Q** 공군전우회 리더로서 추진 중인 사업 및 앞으로의 비전은?

**A** 예비역 단체들을 향한 비판적인 시각이 일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서 귀찮은 선배들이 아닌 현역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Q** 저 같은 후배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A** 타성에 젖으면 항상 그 허약함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추진력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들이 잘해주고 있어서 정말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 미래를 선도하는 항공 우주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공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자랑스런 공군을 만들자



안 병 만 | 사후장교회 회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글 대위 강민정 | 특별편집위원 사진제공 사후장교회

**Q** 창군 60주년을 맞이하는 공군에 축하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우리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역사적인 창설을 계기로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가슴 벅찬 사명을 갖고, 조국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오늘날 현대화된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중요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군예비역들은 아직도 현역시절의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무장된 선배 공군인들의 피와 땀을 밑거름 삼아 발전을 거듭한 우리 공군은 오늘날 최정예기인 F-15K와 첨단무기를 운용하는 세계 수준의 강군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KT-1, T-50의 개발과 수출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전문성과 창의력에 있어서 전 세계 항공인의 주목을 받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달성하였습니다. 조국의 영공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총장님과 장병 여러분들께 공군 창군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Q** 공군장교로 복무하셨던 때의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A** 저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64년도에 사관후보장교 50기로 공군소위에 임관되었으며, 1968년 10월에 대위로 제대하였습니다. 4년 반 동안 공군에서의 생활은 저의 인생행로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의 경험보다 공군장교로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결정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17특기(항공통제)를 부여받았고, 레이더 스크린을 벗삼아 4년 이상을 일하는 가운데 공군장교로서의 자부심은 물론 제 일생을 통해 간직하게 될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확고한 안보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Q** 공군 발전을 위한 제언이 있다면요?

**A** 21세기 우리 공군의 전투영역은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항공우주군' 육성이 우리 공군의 새로운 비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공군의 비전은 공군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현역과 예비역이 혼연일체가 되어 용기와 신념, 희생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선진 공군을 만들고 항공우주군 육성을 위해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은 우수한 인력확보에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마인드를 갖춘 전문화된 리더를 특화시켜 양성하고 효율적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우주군 건설에 부응한 교육훈련 체계를 새롭게 건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공군 후배들을 위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는 조국의 하늘을 사랑하고 지키고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푸른 제복을 입고 청춘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이는 조국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또한 선택받은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공군에게는 60년을 면면히 이어온 공군의 자랑스런 전통과 함께 항공우주군 육성이라는 미래 비전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자랑스런 공군을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 충실하고 부단히 실력을 연마함으로써 공군의 발전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공군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국가와 국민의 행복을 지켜왔다는 사명감과 공지는 우리 공군의 힘

이 한 호 | 공사 총동창회장/28대 공군참모총장

글 중위 고낙일 | 특별편집위원 사진 상사 한정근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공군 제28대 참모총장이자 현재 공사 총동창회장인 이한호(예)장군은 30년 이상을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으며, 퇴역한 지금도 공사 총동창회장으로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진력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공군 창군 60주년은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일 터, 한달음에 달려가 그를 인터뷰했다.

**Q** 어느 덧 공군 창군 60주년입니다. 공군의 수장이셨고 공사 총동창회의 회장으로서 공군 창군 60주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전투기 한 대도 보유하지 못한 채 L-4, L-5 등의 경항공기 20여 대 만의 미미한 전력과 병력을 가지고도 공군을 창군할 수 있었던 선배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25때 맨손으로 폭탄을 던지며 싸웠던 우리 공군이 60년 만에 F-15K를 비롯한 첨단무기들로 무장한 첨단강군으로 발전한 것에 대해 공군인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Q** 창군 60주년, 영원한 공군인이신 선배님께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A** 제가 공군사관학교 가입교를 마치고 입학식을 했을 때 우리 공군이 F-5를 도입했습니다. 4년 후 공군소위로 임관할 즈음에 F-4 팬텀이 도입되었고, 비행단장으로 있을 때에는 F-16을 전력화했습니다. 2005년에 제가 참모총장 이임식을 하고 있을 때 F-15K가 미국에서 날아오고 있었지요. 제가 몰랐던 L-19, T-38, F-86 같은 비행기들과 기인동체가 된 게 엇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흐뭇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대견합니다.

**Q** 지금 이 순간에도 6만여 명의 공군 장병들이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 장병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A**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공군력이 북한의 공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한 순간의 일도 방심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임진강 사고 같은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고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다음으로 안보전문가, 연합·합동전장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 심포니가 해외 공연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공연 시작 두 시간 전, 갑자기 지휘자가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후보 지휘자도 없었고, 다른 지휘자를 불러오기에는 남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때 미셸 프랜시스라는 콘트라베이스 연주자가 일어나 자신이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지휘를 잘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공군인들의 사고와 행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공군 내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자신의 악보뿐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원들의 연주에 관심을 기울였던 프랜시스처럼 국방부, 합참, 육군, 해군의 정책과 전력운용에 항상 관심을 갖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의문을 갖고 폭넓게 사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 공군을 더욱 강한 공군으로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 끈끈한 전우애로 무궁히 발전하라



이 중 근 | ROKAFIS 회장/부영건설 회장

☞ 중위 안기성 | 특별편집위원 사진 상사 한정근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Q**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A** 먼저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은 전 공군 장병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 역시 나날이 발전하는 공군의 모습을 보고 공군 출신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개무량함과 동시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공군이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창군 6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공군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Q** ROKAFIS의 활동소개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2000년 5월 21일에 공군인터넷전우회로 그 활동을 시작한 ROKAFIS(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net Society)는 계급의 구별 없이 오로지 공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ROKAFIS는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생적 단체로, 아마 공군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14개 지역 지부를 두고 격오지에 위치한 7개 사이트 부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부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공군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시행 중인 소정의 교육과정 수료자와 임관자 중 성적 우수자에 대해 시상과 함께 격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ROKAFIS는 예비역과 현역간 친교를 맺는 가교 역할을 위해 전우회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공군 발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A** 가까운 미래에는 항공기 조종이 대중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일반화된 것처럼, 항공면허도 대중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미래 환경 속에서 공군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공군 특유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후 도래하는 우주시대에는 항공우주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공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의 확보와 양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공군 후배들을 위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현실에 보다 충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우애를 외치며 군 생활을 하던 그 모습처럼 타인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려 노력하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끈끈한, 또 다른 형태의 전우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주어진 시간을 항상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며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법정 스님께서도 “모든 것은 생애에 단 한번...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무장 Air Weapon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항공무기관리처 무장전자과

## 발전추세

항공무장은 첨단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전자광학 기술, 위성항법 시스템의 발달, 항공기와의 연동, 데이터 링크 체계 및 복합 유도방식 등 유도기술의 발달로 정밀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신개념의 추진기관, 사거리 연장 날개킷 장착 등으로 장거리 공격능력을 구비한 정밀무장으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민간인 및 기반시설 피해 방지를 위한 비살상 무기와 스텔스 항공기 내부무장 운영을 위해 항공무장 소형화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 주요무장

### 공대공 무장

#### ● AIM-9X(Sidewin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거 리 : 22km</li> <li>• 최대속도 : M 2.5</li> <li>• 기 동 성 : 50G</li> <li>• 유도방식 : INS, IIR</li> <li>• Off-Boresight : ±135°</li> </ul>
---	---

#### ● AIM-120(AMRA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거 리 : 68km</li> <li>• 최대속도 : M 4.0</li> <li>• 기 동 성 : 35G</li> <li>• 유도방식 : INS, 능동레이더</li> <li>• Gimbal Limit : 55°</li> </ul>
---	--

### 공대지 무장

#### ● AGM-84H(SLAM-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거 리 : 280km</li> <li>• C E P : 3m</li> <li>• 관통능력 : 콘트리트 1.2m</li> <li>• 유도방식 : GPS/INS, IIR</li> <li>• 주 표 적 : 함정, 견고표적</li> </ul>
---	--

#### ● AGM-158(JAS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거 리 : 370km</li> <li>• C E P : 3m</li> <li>• 관통능력 : 콘트리트 1.5m</li> <li>• 유도방식 : GPS/INS, IIR</li> <li>• 주 표 적 : 견고표적</li> </ul>
--	--

#### ● AGM-142(Popey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거 리 : 105km</li> <li>• C E P : 3m</li> <li>• 관통능력 : 콘트리트 1.2m</li> <li>• 유도방식 : INS, TV/IIR</li> <li>• 주 표 적 : 지하 견고표적</li> </ul>
---	--

#### ● GBU-31(JD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거 리 : 24km</li> <li>• C E P : 8m</li> <li>• 관통능력 : 콘트리트 1.8m</li> <li>• 유도방식 : GPS/INS</li> <li>• 주 표 적 : 견고표적</li> </ul>
--	--

#### ● GBU-24(Paveway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거 리 : 20km</li> <li>• C E P : 3m</li> <li>• 관통능력 : 콘트리트 1.8m</li> <li>• 유도방식 : 레이저</li> <li>• 주 표 적 : 견고표적</li> </ul>
---	--

#### ● GBU-54(Laser JD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거 리 : 24km</li> <li>• C E P : 3m</li> <li>• 폭 파 구 : 30ft × 10ft</li> <li>• 유도방식 : GPS/INS, 레이저</li> <li>• 주 표 적 : 이동, 연성표적</li> </ul>
--	--

#### ● GBU-39(SD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거 리 : 90km</li> <li>• C E P : 3m</li> <li>• 관통능력 : 콘트리트 1.8m</li> <li>• 유도방식 : GPS/INS</li> <li>• 주 표 적 : 견고표적</li> </ul>
---	--

#### ● CBU-105(WCM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 확 도 : 85 ~ 100ft</li> <li>• 폭 파 구 : 30ft × 10ft</li> <li>• 유도방식 : INS</li> <li>• 주 표 적 : 전차, 탱크</li> </u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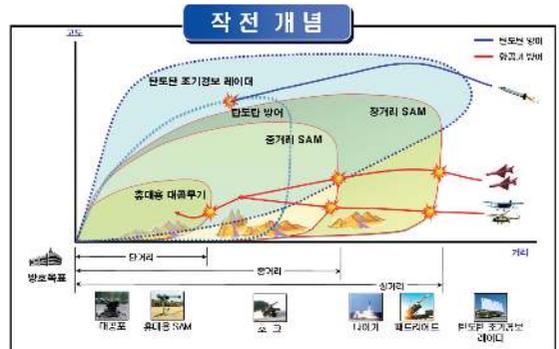
# 방공포병작전 Air Defense Artillery Operation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작전훈련처 방공포병과

우리 방공포병은 미군의 장비를 리受받아 1955년도에 제1고사포병여단을 創設하였으며, 1960년도에는 최초로 유도탄부대가 배치되었다. 이후 1972년 12월에 육군 방공포병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1991년 7월 1일부로 陸軍에서 空軍으로 전군하였다. 전군 이후 SAM-X(차기유도 무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08년도에 패트리엇 포대를 최초로 창설하였다.

방공포병 무기체계는 적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구성되어 국지 및 지역 방공작전을 수행하고, 수도권 및 주요 핵심시설 방호목표에 대한 탄도탄방어 임무를 수행한다.

방공포병의 임무는 지대공 유도무기로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 공중 적성항체를 파괴, 무력화시킴으로써 우군의 주요 방호목표를 방호하고 전방 전투부대인 지상군에 대한 방공작전을 지원한다.

방공포병은 향후 항공기, 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위협에 대한 다층 복합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SAM(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조기경보레이더 등을 전력화할 계획이다.



### ● 패트리엇(장거리 SAM)



- 사 거 리 : 항공기 160km  
탄도탄 30km
- 유효고도 : 항공기 24km  
탄도탄 15km
- 유도방식 : 지휘유도+TVM 유도
- 속 도 : 마하 5
- 제 작 국 : 미국(레이션사)

### ● 나이키(장거리 SAM)



- 사 거 리 : 지대공 155km  
지대지 183km
- 유효고도 : 30.4km
- 유도방식 : 지휘유도
- 속 도 : 마하 3.2
- 제 작 국 : 미국(AT&T)

### ● 호크(중거리 SAM)



- 사 거 리 : 40km
- 유효고도 : 18km
- 유도방식 : 반능동 명중 유도
- 속 도 : 마하 3.4
- 제 작 국 : 미국(레이션사)

### ● 산궁(휴대용 SAM)



- 사 거 리 : 5km
- 유효고도 : 3km
- 유도방식 : 적외선 열추적
- 속 도 : 마하 2.1
- 제 작 국 : 한국(ADD)

### ● 미스트랄(휴대용 SAM)



- 사 거 리 : 5.3km
- 유효고도 : 2.5km
- 유도방식 : 적외선 열추적
- 속 도 : 마하 2.5
- 제 작 국 : 프랑스(마트라사)

### ● 발칸(대공포)



- 사 거 리 : 대공 1.8km  
지상 2km
- 구 경 : 20mm
- 탐지거리 : 5km
- 발사속도 : 3,000발/분
- 제 작 국 : 미국(마틴사)

# 방공작전 Air Defense Operation

공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작전훈련처 항공통제과

1955년 제30비행관제경보대대가 창설되면서 한국공군의 요격관제 및 조기경보업무가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미군에서 운영 중인 관제부대들을 차례로 인수하고 레이더 장비들을 확충하면서, 1969년 9월 사령부급 부대인 제30방공관제단을 창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30방공관제단은 수동 방공작전체계의 한계와 적의 대량 공중공격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1984년 자동화 방공작전체계 장비 설치 후 단계적 작전 과정을 거쳐 1985년 7월 북부지역의 제1MCRC가 작전을 개시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항공작전 능력 신장과 전·평시 자동화방공통제체계의 생존성 확보를 위해 상호 보완적 개념의 양개 MCRC 운영이 필요하게 되어 남부지역에 제2MCRC가 전력화되었다. 현재는 노후화된 제1MCRC의 장비교체를 위한 북극성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북극성 사업이 종료되면 양개 MCRC를 통해 완전한 분권화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1·2MCRC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방공관제 레이더로부터 수신된 항적자료를 이용하여 24시간 완벽한 공중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중감시수가 포착한 전 항적에 대해 적·아 식별절차를 거친 후 미식별 항적에 대해 전투비행단에서 비상대기 중인 전투기를 긴급출동시켜 식별절차를 수행하고, 적기에 대해서는 요격기 또는 지상 대기 중인 방공포(NIKE, HAWK 등) 전력을 활용 교전임무를 수행한다.

제1·2MCRC는 방공관제레이더뿐만 아니라 해군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방공포 레이더 및 육군 저고도 레이더에서 포착한 자료와 연동하여 완벽한 방공작전을 수행 중에 있다. 향후 한국 공군의 조기경보통제기(E-737)가 전력화되면 산악지형과 지구곡률로 인한 지상 레이더의 제한사항이 보완되어, 저고도 침투항적에 대한 조기 포착능력 향상으로 방공작전 수행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up>AF</sup>



〈제1MCRC(북극성 체계)〉



〈제2MCRC(천리안 체계)〉



〈자동화 방공작전체계〉

# Hot SKETCH



## ◎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 제막식

참모총장은 9월 22일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 내·외빈 200여 명과 공군 장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제막식에서 참모총장은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은 오늘의 대한민국 공군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배전우들이 바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다”며, “새로운 60년에도 국민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속에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써 미래 항공우주군으로의 발전을 다짐하는 우리 공군의 약속도 담겨 있음”을 강조했다.

'공군 창군 60주년 기념탑'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로 창설되어 지난 60년간 조국 영공방위 임무 완수를 위한 선후배 동료들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미래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건립됐다.

전투기가 솟구치는 형상으로 만들어진 기념탑은 중앙의 첨탑까지 높이가 13.5m이고, 본체까지는 9m이다. 탑의 중간부 타원은 공군의 단합 및 우주로 넘어가는 대기권을 표현하며, 주변부 4개의 탑은 공군의 핵심가치인 도전·헌신·전문성·팀워크를, 중앙탑은 '미래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군의 비전을 상징한다.



◎ 미 공군 안보지원사령관 접견

참모총장은 9월 17일 韓·美 공군간 FMS 발전 및 현안업무 논의를 위해 공군본부를 방문한 조세프 라니(Joseph A. Lanni) 미 공군 안보지원사령관 일행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날 참모총장은 “그동안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준 美 공군 관계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공군의 주요 전력 증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라니 사령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항공대와 교류 합의서 체결

참모총장은 9월 9일 공군본부에서 항공대학교 여준구 총장과 공군-항공대간 학군 교류 MOU를 체결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참모총장은 “우리 공군이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우주분야교류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인적자원교류가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항공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20비 지역 재조형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9월 3일 82·86·42창, 소프트웨어지원소를 순시하여 군 재조형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장병들에게 “주임무인 항공기 가동률을 유지/향상 시키는데 아직 해외의존율이 높으므로 민·군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전환율을 높여가야 한다”면서, “부대가 하나되고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월의

## 공군역사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공군 창군(1949년 10월 1일)

전투기 한 대 없이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은 L-4, L-5 연락기와 국민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마련한 T-6 견국기 등 불과 20여 대 남짓한 항공기를 가지고 일개 군으로 독립하는 것은 상당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었다. 특히 육군과 미 고문단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미 고문단은 “한국의 육군이 초창기이므로 통신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규모의 항공대가 필요할 뿐 공군 독립은 육군이 충분히 성장한 뒤에 논의할 문제다”며 공군독립을 반대하였고 채병덕 육군참모총장 역시 “공지합동작전을 위해서는 공군을 육군 예하에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며 공군독립을 찬성하지 않았다.



공군독립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군장병들의 가장행렬 모습 (1951년 10월 1일)

그러나 항공인들은 “현대전은 입체전이며 공군세력의 우세 없이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공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군을 육군에서 분리 창설하여 3군의 균형을 이룩해야 한다.”며 공군독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다각도로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초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김정렬 장군은 ‘항공의 경종’이라는 책자를 발간, 정부와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항공사상의 계몽과 공군독립의 시대적 당위성을 설파하는 등 전 항공인이 하나된 공군독립 운동은 1948년 국군조직법상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이 필요한 때는 독립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반영되었고, 1949년 10월 1일 마침내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에 의거 대한민국 공군이 창군되었다.

###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개최(1979년 10월 7일)



1981년 제3회 모형항공기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체신부에서 발행한 기념우표

공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대한항공연구회에서 주최한 모형항공기 대회를 후원한 것을 시작으로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일보, 미 8군 및 수송과학기술협회, 한국모형항공협회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민간 모형항공기 대회를 직·간접적으로 후원해 왔다. 그러나 장차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재(棟梁材)인 초·중고생들에게 푸른 하늘에 대한 동경과 꿈을 심어주며 이를 통하여 항공 산업발전을 견인할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자각하에서 1979년 10월 7일 제1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를 공군사관학교(대방동)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제1회 대회는 글라이더(자유비행), 고무동력기(자유비행), 유·무선 조종 등 4개 분야에 3천2백여 명이 전국 5개 지역예선에 참가하였



으며, 본선에는 610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제3회 대회 때는 체신부에서 모형항공기 대회를 기념한 특별우표도 발행하여 범국민적인 행사로 성장한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의 장도를 축하해 주었다. 회를 거듭할수록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항공축제로 그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는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는 연평균 1만 5천여 명의 예비 항공인들이 참가하여 하늘을 향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산실이 되고 있으며, 2008년 30회 대회(5월 18일)에서는 국내 최대의 항공우주 과학축제로서 위상을 다지기 위하여 대회 명칭을 '제30회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8' 이라 명칭을 변경하고 기념세미나 및 대회 역사자료 전시회와 경기개최 항목으로 '물 로켓 발사'를 추가하여 그 어느 해보다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서울에어쇼 '96 행사는 대한민국 공군을 대표하는 블랙이글스팀 외에도 호주의 Sierra Ace, 라팔, Su-27 등이 참가하여 고난이도의 공중 기동을 선보였다.

### 서울에어쇼 '96 개최(1996년 10월 21일)

서울에어쇼 '96 행사(정식명칭 제7회 서울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및 에어쇼)는 21세기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군의 대국민 유대강화 및 범국민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주관, 대한민국 공군 주최로 1996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서울공항에서 진행되었다. 더 높은 하늘로! 더 넓은 세계로!를 주제로 하여 총 107,000명의 전시장에 대한 항공, 삼성항공, 보잉, 록히드 마틴, BAe 시스템 등 21개국 세계 유수의 214개 업체가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룬 서울에어쇼 '96 행사는 총 입장객만 552,000명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치렀다.

### F-15K 첫 2대 한국 도착(2005년 10월 7일)

공군이 美 보잉사로부터 도입했던 F-15K 40대 중 첫 두 대가 '05년 10월 7일 한국에 도착했다. 이번에 도착한 F-15K 두 대는 지난 2일, 미국 세인트 루이스 기지를 이륙해 하와이, 괌의 미군기지에서 한 차례씩 기착했다. 비행 내내 美 공군의 공중급유기 KC-135가 함께 비행하며 공중급유를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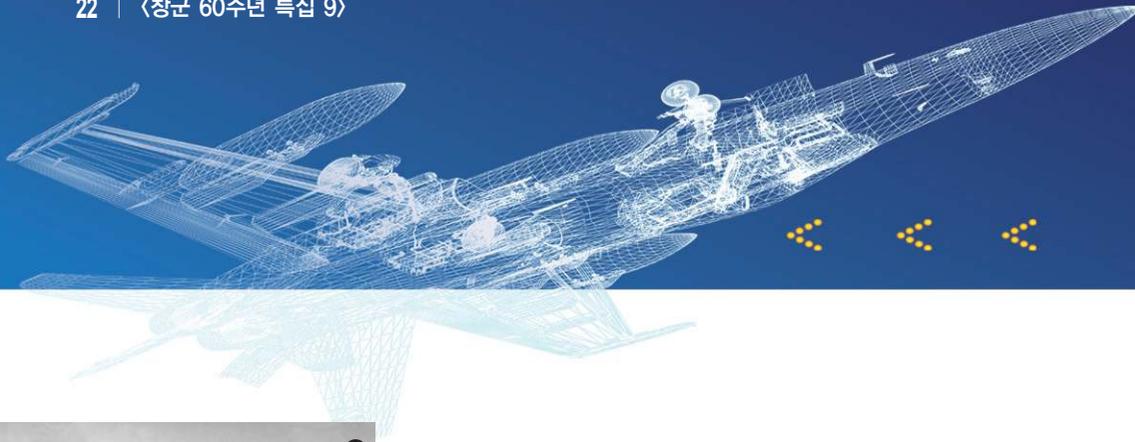
두 대의 F-15K는 중간 기착지인 괌을 7일 오전 이륙해 같은 날 오후 공군 서울기지에 착륙했다. 세인트 루이스부터 총 1만 5,962km를 날아 한반도에 무사히 안착한 것이다. 순수 비행시간만 해도 20시간이 넘었다.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경제속도인 시속 900~1,000km로 순항했기 때문이다.

두 대의 F-15K 조종간은 美 보잉사의 조종사 두 명이 앉았다. 후방석에는 한국 공군의 이영수 (당시)소령과 보잉사의 무장통제사가 각각 탑승했다. 이 소령은 F-15K 전함 및 교관훈련을 받은 8명의 한국 조종사 중 가장 만형격으로 '04년 6월부터 약 15개월 동안 미국 시모어 존슨 기지 등에서 비행 훈련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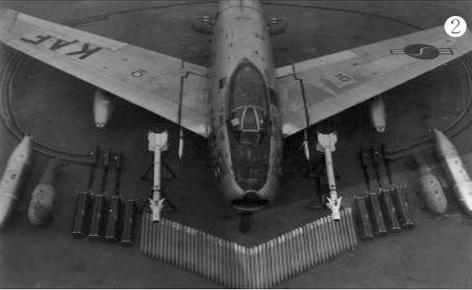
도착한 F-15K는 한국 공군에 인도될 40대 중 3·4호기로 11월 한국 공군의 수락검사 후 공식 인도되었다. 그러나 이에 앞서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서울기지에서 있을 「서울에어쇼 2005」에서 국민에게 첫 공개되었다. (4)



세인트 루이스로부터 총 1만 5,962km를 날아 한반도에 무사히 안착한 F-15K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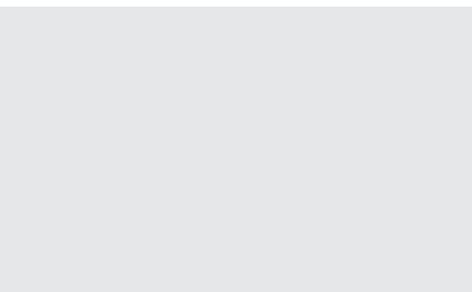
2



3



4



5



6

#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본다 9

자료제공 역사기록관리단 원고정리 편집실

## ● F - 86F

세이버(Sabre)라는 별명을 가진 본 항공기는 미국 최초의 후퇴익 1인승 제트 전투기이다. F-51 전투기를 주력전투기로 운용하던 대한민국 공군은 MIG-15 전투기에 대항하기 위한 신예기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4년 3월과 11월에 미국과 공군력 증강을 위한 협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 공군에 F-86F 전투기 1개 비행단과 C-46D 수송기 1개 전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55년 6월 20일 F-86F 전투기 5대가 최초로 도입되면서 대한민국 공군의 제트화 시대는 그 서막을 열게 되었다.

6·25 전쟁 당시 '썩썩이'로 불리며 제트기로서는 최초로 MIG기와 첫 공중전을 벌였던 F-86F 전투기는 신상옥 감독의 공전의 히트작인 '빨간 마후라'와 곡예비행팀인 블루 세이버(Blue Sabre Team 1959년부터 1966년)를 통하여 한국 공군의 상징으로 그 위용을 떨쳤으며 1990년 일선에서 퇴역하였다.

## ● UH-1B

UH-1B는 BELL 204를 군용으로 개조한 2개의 회전날개를 가진 다목적 헬리콥터이다. 1962년 최초로 비행하였으며 월남전에서 공격용 헬기 및 무장 호송기로 운용되었다. 대한민국 공군은 UH-1B 헬기를 1977년 7월 12일에 도입하여 작전지원, 공수낙하훈련 및 대민 지원 등의 임무에 사용하였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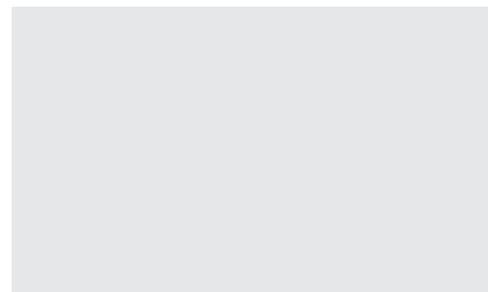
● **CN-235M**

1973년 도입하여 운용을 시작한 C-123 수송기가, 장기간 운용에 따른 항공기 노후화와 빈번한 기체결합,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우리 공군에서는 1989년 12월에 C-X사업(중형수송기 도입사업)에 대한 소요제기를 통하여 스페인 CASA社의 CN-235M-100 수송기와 이탈리아 Aeritalia社의 G-222 수송기를 도입 대상기종으로 선정하였으며, 1992년 4월에 CN-235M 수송기 도입을 최종 결정하였다.

스페인의 CASA社와 인도네시아의 IPTN社가 공동으로 개발한 CN-235M 수송기는 비정규진, 탐색구조, 특수지역 병참공수 등의 특수임무능력과 2,060NM의 항속거리에 48명의 병력, 13,200LBS의 화물 수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형수송기로서 우리 공군은 1994년 1월 12일 1차분을 도입하였다.

이후 CN-235M 추가도입은 인도네시아와의 방산물자 상호 대응구매에 따라 IPTN社로부터 이루어졌으며, 현재 우리 공군은 스페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총 00대의 CN-235M 수송기를 도입하여 무기도입선 다변화에 따른 항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C-130H 수송기와 함께 공군의 주력 수송기로서 성공적인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㉞

- ① F-86F 전투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1955)
- ② F-86F 전투기 무장전시
- ③ F-86F 전투기 연료보급
- ④ F-86F 전투기 무장장착
- ⑤ F-86F 전투기 곡예비행팀(1966)
- ⑥ F-86F 전투기 명예퇴역식(1990)
- ⑦ UH-1B의 지상전시
- ⑧ 제233구조비행대대 파견대에서 거행된 83-1차 UH-1B 전환교육 수료식
- ⑨ ⑩ ⑪ 제5전술공수비행단에서 열린 CN-235M 수송기 도입식
- ⑫ 도입식 후 김홍래 참모총장은 CN-235M 시승 및 기념촬영 실시함.



## 제1·3대 참모총장

## 공군 창군의 주역 김정렬 장군

글 이문호 | 공사총동참회 사무총장, (예)준장

**공**군창군 60주년을 맞았다. 우리 공군은 최신에 전투기인 F-15, F-16 등으로 무장한 막강 전력으로 성장하여 우리 조국의 영공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 현대전에서 공군은 전쟁역제의 핵심이고 전시에는 전승의 주역이라는 것은 걸프전 이후의 전쟁에서 지상군 전선이 형성되기도 전에 공군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공군력의 발전은 1948년 통위부 소속으로 창설된 항공부대가 육군 예하 항공사령부를 거쳐 1949년 10월 1일 공군으로 독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주도적인 역할은 김정렬 장군을 포함한 창군 7인이 담당하였다. 미 공군도 육군에서 독립한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던 1949년 당시 김정렬 대령은 '장차전은 입체전으로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국군이 균형있게 발전해야만 국방안전을 기할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군이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당시 육군을 포함한 주위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켜 불과 1,600여 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로 공군 독립의 위업을 이룩하였다.

김정렬 장군은 언제나 변치 않는 것은 푸른 하늘에 대한 꿈과 조종에 대한 향수라면서 비행기만 타면 앓던 병도 낫더라고 말하던 영원한 조인(鳥人)이었다. 그 분이 걸어온 길은 오로지 우리 공군과 나라 발전을 위해 희생과 봉사로 일관한 길이었다. 일찍부터 그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늘로 뻗어 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하늘에 눈을 돌려 조종사의 길을 택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 치하에서 일본 육사를 나와 비행기량 숙달에 전념하던 그는 광복을 맞이하자 귀국하여 항공계의 조선인 선각자들과 함께 공군창설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군을 창설하였다. 선구자이고 개척자였던 당시 김정렬 대령은 초대 공군총참모장의 중책을 맡고 무엇보다도 체제정비와 전비태세를 갖추는 데 열과 성을 다하였다. 특히 "한국인은 모두가 항공인이 되자"고 호소하면서 범국민적인 애국기 헌납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와중에도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단숨에 우리 힘으로 10대의 연습기를 갖추 수 있었다.





얼마 후 6·25가 발발하자 우리 조종사들은 이 건국기를 타고 출격하여 우리 공군의 존재와 투지를 보여 주었고, 기습남침으로 당황하고 있던 우리 국민과 국군의 사기를 드높였다. 창군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6·25라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 일면 전투, 일면 훈련에 임하여 위기를 극복 하였고, 1952년 10월 후진양성과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겠다는 일념으로 직접 이승만 대통령에게 상소문을 올려 스스로 총참모장 직을 이임하였다.

역대 참모총장 연설집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장군은 상소문에서 “공군 총참모장 직을 임기제로 하는 것이 좋겠으며, 심사숙고한 결과 지금 현 직책에서 해면(解免)되는 것이 최선의 시기라고 판단되고 또한 유종의 미를 거둔다 함은 남아평생의 자량인만큼 부디 자이를 일층 수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면서 “지와 덕을 겸비한 최용덕 장군을 총참모장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다.

그 후 다시 최용덕 장군의 후임으로 제3대 참모총장에 취임하게 되자 공군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전투기 시대를 열고 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전술공군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또한 사회에 나가서도 국방부장관, 국회의원, 국무총리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겨레와 나라를 위해 잠시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분이였다. 특히, 국방부장관 시절 3·15 부정선거로 촉발한 4·19 의거 때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면서 극도로 정국이 혼란할 때인 데도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 장관마저 인의 장막을 치고 진실을 외면할 때, 대통령에게 사건 진상을 말하면서 하여야를 건의 하여 학생들의 희생을 줄인 것도 김정렬 국방부장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또 일류 기업이던 삼성의 회장을 역임 하였고, 민주화 과정의 과도기에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하였다.

초창기 거의 빈손으로 출발했던 우리 공군이 오늘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필승의 정예공군으로 일취월장하게 된 것은 바로 김정렬 장군과 같은 선배들의 열정과 헌신이 크나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

이곳 여의도 공원은, 한국공군 창군 당시 우리 공군의 비행부대가 최초로 주둔했던 역사적인 장소로서, 우리 공군은, ....., 6·25전쟁 발발 초기에 공군 요청으로 육군병기창에서 제조한 폭탄과 수류탄으로 적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고 출격하였습니다.

공군창군 60주년 기념탑에는, 오늘의 공군을 있게 한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는 물론, 대한민국 공군의 조국 영공 수호에 대한 확실한 다짐과 정예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원대한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 '09년 9월 22일 '창군 60주년 기념탑 제막식' 건립 경과 보고 중에서 -

어려운 여건에서 공군 독립을 일궈냈던 선배들의 창군 정신을 계승하고, 정예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할 시대적인 소명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09년에 임관/입교한 특별대담자 5인 -

- 자세한 기사는 반대면 1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09.10

www.airforce.mil.kr Vol.376

Since 1949. 10. 1

공군 창군 60주년 특집호

# 공군

Monthly Magazine **Air Force**



## 항공우주 공군의 미래

Future & Insight  
항공우주력 건설

미래 60년 특별대담  
공군의 미래는 나의 것

World-Wide Vision  
미래를 위한 특허





# 하늘에 만든 길

- 공군 창군 60주년에 부침 -

하늘에도 길이 있다  
날개가 만드는 길이 있다

새에게서 배우고  
바람에게서 배우고  
길을 찾아 길을 간 은빛처럼 번득이는  
높고 깊은 영혼이 있다

그대가 날아간 하늘은 검은 구름과 어둠  
가로등 없는 킁킁한 거리

아, 누가 말하였는가  
조국이라는 이름  
조국의 하늘이라는 성지(聖地)  
거기에 등불을 달아야

조국이 있고  
조국의 하늘이 밝아진다고

은빛 같은 영혼이 하늘의 길을 날아가  
지상의 모든 염원을 한 모퉁이에 걸어놓고  
돌아와 땀 찬 비행 헬멧을 벗을 때

조국의 하늘은  
분투와 희생을 기억한다, 보람찬 날개여

그대가 돌아온 하늘은 맑은 구름과 햇빛  
어둠 속에서 빛나는 이열종대의 유도 램프

하늘에도 길이 있다  
날개가 만드는 길이 있다.

■ **고운기** | 창공클럽(공군애호 문인단) 부회장

1961년 전남 보성 출생. 연세대학교원 국문학과 졸업. 198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으로 <자전거 타고 노래 부르기>, <나는 이 거리의 문법을 모른다> 등이 있음. <시힘> 동인. 현재 연세대학교학연구원 연구교수



# CONTENTS

# 2009.10

www.airforce.mil.kr Vol.376



표지설명 : 공군 역사발전상을 상징하는 단어들, 항공우주군 도약의 초석

표지디자인 : 강은혜 | 일러스트레이터

## 공군 October 2009 No.376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일(통권 제376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02-506-6935, 042-552-6935

편집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준정(진) 김규진

편집자문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소령 라동섭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중위 기용호

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

※ 본 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04** 명사로부터 듣는다 \_ 우주로 비상하는 대한민국 공군

**06** 예비역 제언 \_ “밝고 건강한 공군의 미래를 바란다”

**08** Future & Insight 1. 공군비전 \_ 공군비전 2030

**13** 미래 60년 특별대담 \_ 공군의 미래는 나의 것

**16** Future & Insight 2. 미래 공군 \_ 세계 우주분야 투자 및 우주산업 현황

\_ 공군의 미래 우주전략 및 비전

\_ 첨단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21** Future & Insight 3. 항공우주력 \_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공군 우주력 발전계획

**25** World-Wide Vision \_ 미래를 위한 특허

**28**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온 세상은 다 무언가의 은유이다

**30** Beauty 바이러스 \_ 강력한 보습이 필요하세요?

**32** Letters to the Editor \_ 2009년 8월호를 읽고서

**35** 창군 60주년 기념엽서



## 우주로 비상하는 대한민국 공군

2009년 10월 1일로 공군 창설 60주년이 되었다. “참으로 장하다! 우리 공군”이라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1,600여 명의 병력과 L-4 등 경비행기 20대로 출발한 우리 공군이 이제는 최신형 F-15 전투기를 비롯한 800여 대의 항공기와 6만 5천여 명의 병력을 보유한 국가방위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핵심전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공군비전 2025’를 통해 ‘항공우주군’을 지향하고 있다.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는 공군력을 배양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돋보인다.

필자는 공군의 힘이 참 무섭다는 것을 일찍이 체험했다. 6·25 한국전쟁 때 원산에서 살았던 탓에 공습의 공포에 떨며 지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열세 살 때 일이다. 1950년 6월 25일 아침 등교하던 길에 “영웅한 인민군 용사들이 오늘 새벽 철원 북방 4km까지 북침해 온 국방군을 물리치고 남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방송을 확성기로 틀어주는 것을 듣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부터 매일 원산 시내 곳곳에 대형 한반도 지도를 걸어놓고 인민군이 점령한 남한의 도시마다 인공기를 붙여 전황을 알렸다. 어린 생각에도 이렇게 빨리 인민군이 진격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정도였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정말 인민군이 남한을 모두 점령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어른들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숨어서 소곤거렸다. 이승만 박사를 돕기 위해 원자탄을 떨어뜨릴지 모른다

는 얘기도 돌았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공습경보가 울리더니 멀리서 폭탄 터지는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원산 갈마반도에 있던 정유공장이 폭격을 받아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다. 그로부터 폭격은 계속되었고 도시는 만신창이가 되어 갔다. 사람들이 피난길을 떠나기 시작했고 도시는 텅 비어 갔다.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인민군의 진군 나팔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우리 가족도 피난길에 나섰다. 길을 가는 도중에 이른바 ‘씩씩이’의 공습을 피할 수 없었다(그때 북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제트기를 그렇게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호주 비행기라고 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호주 출신인 줄 알고 이승만 박사를 돕기 위해 비행기를 보낸 것으로 잘못 안 탓이다). 전투기의 기총소사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래서 필자는 공군의 힘이 무섭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게 되었다. 철들어 공군에 입대해 군대생활을 하면서 현대전에서 공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만약 한국전쟁에서 제공권을 우리가 장악하지 못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다. 제공권을 장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승리의 보증 수표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한반도 상황을 생각해 보자. 북한은 이미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동원체제를 구축했다. 이 세 가지 목표 가운데 핵심은 군사강국의 건설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 구체적 증거가 핵무장이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하고 북한이 유사시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보유시설과 발사기지, 운반시설 등에 대해 타격을 가하겠다.”는 전략임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전략의 중심에 공군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왜냐하면 21세기 전장은 항공우주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면 지상전이나 해양전은 자동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에서 우선순위는 항공우주전에서 공중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전력체계의 구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네 가지 군사력 건설의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21세기 효과기반작전환경에 대비한 전력체계의 구축이다. 누구나 지적하는 바와 같이 미래의 전쟁은 원거리 정밀타격전이며 전략적 마비전이다. 우리는 이라크전쟁에서 이미 그와 같은 상황을 잘 보았다. 따라서 한국군은 원거리 정밀타격전 무기체계로 빨리 전환시켜야만 한다. 공군전력의 강화가 요구되는 근거이기도 하다.

둘째, 한국군의 소수정예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노동집약형 전력구조는 21세기 효과기반 전장 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셋째로 군의 첨단무장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이 같은 요청은 이제 근접전투용 무기체계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부터는 자주국방의 초석이 되는 전략정보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감시정찰 전력 확보 사업, 정밀타격전력 등 첨단전력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옳다. 끝으로 3군의 균형발전이 요구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특히 첨단전력 확보에서 3군 사이에 이기주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균형, 전략제대의 작전지휘체계의 균형, 국방 예산 배분의 균형 등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오로지 국가안보 역량강화라는 대의에 순응하는 허심탄회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강조해야 할 점은 첨단전력 강화가 다만 첨단무기체계의 구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력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관건이다. 그래서 공군이 제정한 핵심가치에 주목하



지 않을 수 없다. 공군의 역사를 관통하는 ‘도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헌신’, 선진정예 공군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 그리고 호흡을 맞추어야 임무수행이 가능한 ‘팀워크’라는 네 가지 핵심가치야말로 막강 공군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하면서 유연한 항공우주공군의 미래는 이 같은 네 가지 핵심가치를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충실하게 내면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항공우주공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한 거듭나기, 국민의 사랑받는 공군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미덕인 헌신, 항공우주전 수행에 필수적인 전문성의 함양을 위한 부단한 노력, 그리고 함께 하나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끈끈한 팀워크 등을 갖춘 장병들이 있는 한 막강 공군은 영원하리라. ㉔



**김유재 천**  
 - 공군정책발전전문위원  
 - 現 상지대 총장  
 - 前 한림대 부총장  
 - 前 KBS 이사장



# “밝고 건강한 공군의 미래를 바란다”

- 무더운 여름날 흘린 뜨거운 눈물 -

▣ 배창식 | 前 작전사령관 | (예) 공군 중장

지난 7월 20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거행된 故 박명렬·인철 부자의 흉상 제막식이 있었다. 흉상은 1984년 3월 韓·美연합 팀스피리트 훈련 중 순직한 故 박명렬 소령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종사간 된 후 2007년 7월 서해 상공에서 F-16 전투기 요격훈련 중 순직한 아들 인철의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다. 제막식 행사 참석자들은 안타까움으로 인해 흐르는 땀보다 더 많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저리며 옷깃을 여몄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그날의 제막식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고 있겠지만 필자에게는 천붕(天崩)의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떨리는 손끝으로 아들의 동상을 어루만지던 이준신 여사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고인들은 오늘도 모교인 공군사관학교 교정에서 그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조국의 하늘과 조종사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흉상으로나마 진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미래의 조국 하늘과 조종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올해로 공군창군 60주년을 맞았다. 창군 60주년은 고인들과 같은 수많은 공군인들의 충혼과 희생으로 조국의 하늘을 지켜왔기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는 미래 60년 항공우주군의 주역이 될 전투조종사들이 자랑스럽게 영공방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영공방위 임무는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절대적이고도 숙명적인 임무다.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 조종사들은 창공의 수많은 어려운 도전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푸른 하늘을 독수리처럼 멋지고 힘차게 날아가는 공군 전투기 한 대는 낭만과 꿈만을

신고 날아가지는 않는다. 조종사는 우리가 단순히 영화나 땅에서 보는 그런 낭만은 고사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위협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단 1초의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극한 상황들과 끊임없는 사투를 벌이면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한 시간의 전투임무 비행을 완수하고 나면 내 몸에서 온 기력이 모두 빠져 나간 듯한 무기력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운 임무를 천직으로 알고 수행해야 하는 조종사들은 비행을 위해서라면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수많은 제약을 받는다. 오로지 영공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극한 상황에서는 목숨까지도 담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따뜻한 격려와 무한한 신뢰를 보내줘야 한다.

또한 조종사들의 충정(忠情)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임무수행하도록 우수한 항공무기체계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조종사들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사기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실질적 작전능력보유 없이는 우리의 영공을 완벽히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장차 주변국까지 견제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를 구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군 조종사들이 영공수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체계를 구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첨단항공기를 보유하고 최신의 정밀무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용할 우수한 조종사를 양성하지 못하면 첨단 고가장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항공 전력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1944~1945년)시 독일의 경험에서 잘 나타나 있다. 당시 독일은 연합군에게 제공권을 내준 후 전장 상황이 불리해 지자 필사적으로 항공기 생산량을 증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독일의 이러한 항공기 증산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그 이유는 1944년 당시 독일의 조종사 양성이 거의 파산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첨단 무기체계 운영을 위한 조종사 확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우리 공군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핵심 조종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군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매년 백 수십 명이 넘는 많은 조종사가 공군을 떠나고 있는데 이들을 양성하는데 든 비용만도 약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조종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진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줘야 함은 물론 어렵고 위험한 임무에 노출된 조종사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민간 항공사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도록 경제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생활여건 개선, 자녀교육, 복지 등 제반 생활여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어야 한다. 첨단 전투기와 정밀 유도 무기는 돈으로 사올 수 있지만 임무 완수를 위한 유능한 조종사는 최소 10년 이상의 세월을 투자해야 양성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의 젊은 조종사들은 조국 하늘을 지키기 위해 넓고 푸른 창공을 날으면서 항공기의 좁은 조종석에서 단 1분 1초의 험도 없이 긴장 속에서 충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조국영공을 지키다가 먼저 우리 곁을 떠나간 부자(父子) 조종사의 고귀한 죽음 앞에서 그 얼을 이어받은 공군의 젊은 조종사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국가를 지키는 중차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첨단 항공무기체계 구축은 물론이고 대안을 마련해 주는 등 그들에게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보내주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 다시는 한 가족을 비통한 슬픔 속으로 몰아넣어 통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적절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때가 아닌가를 다시 한 번 숙연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조종사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자 무덤인 저 푸른 창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㉞**



# 공군비전 2030

- Air Force Vision 2030 and Beyond -

글·사진 전투발전단 교리발전처

**공군비전 2030**은 창군 60주년을 맞아 우리 공군의 지난 60년을 재조명하고, 급변하는 제반 안보환경과 국방여건에 부합하는 공군의 비전과 분야별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구현함에 있어서 수 공군인의 선택과 집중, 노력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공군비전 2030은 공군의 발전사를 회고하여 공군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안보환경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미래전 양상에 대한 예측 결과를 기초로 공군의 비전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전의 목표를 정립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전력구조, 부대구조 등 11개 분야별 10년 단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공군 60년과 오늘의 공군

1949년 10월 1일 창군 당시 공군의 전력은 1,600여 명의 병력과 여의도에 위치한 1개 비행기지 그리고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은 L-4와 L-5 연락기 20대에 불과했으며, 북한의 기습적 남침에 의해 창군 8개월여 만에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1950년 7월 3일, F-51 무스탕 전투기를 일본 이다즈께 기지로부터 인수한 지 하루 만에 적진을 향해

첫 출격을 시작한 이후, 전쟁 중 8,495회의 출격을 통해 승호리 철교차단 작전, 송림제철소 폭격작전, 평양 대폭격 작전 등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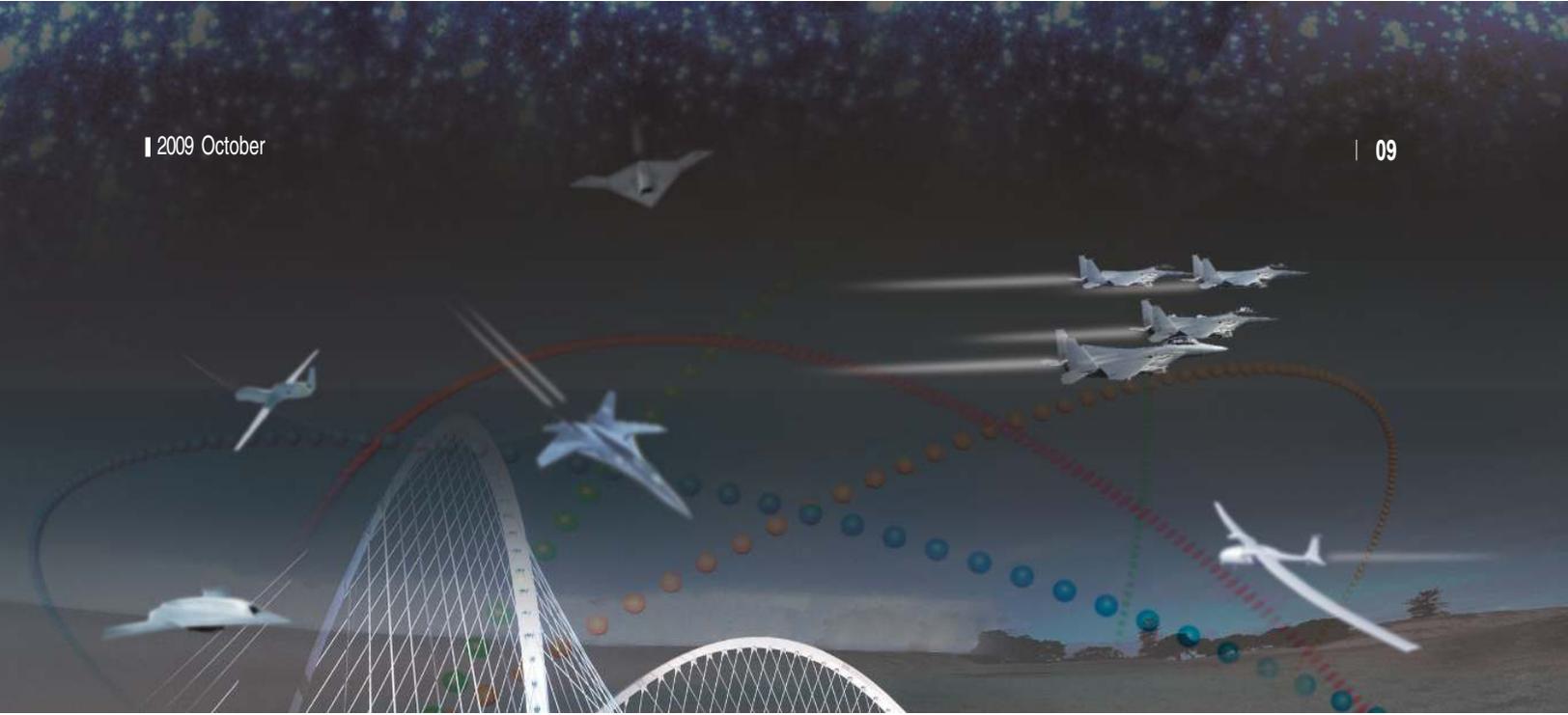
휴전 이후, 공군은 전력증강 노력을 통해 1955년에 F-86 도입으로 제트기 시대를 열었으며, 1965년에는 F-5A/B를 도입함으로써 초음속 전투기 시대를 열었고, 이후 F-4, KF-16, F-15K 등 첨단 전투기 도입 및 정찰·정보전력 증강, 중형수송기 및 탐색구조헬기 도입 등을 통해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공군은 사령부급 5개 부대, 전대급 이상 53개 부대, 병력 66,000여 명, 전투임무기 480여 대, 공중기동기·감시통제기·훈련기 300여 대의 전력을 운용하는 등 창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공중우세 확보, 전략적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국가안보의 핵심전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군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국방여건 속에서 능동적으로 극복해야 할 많은 당면 과제들을 안고 있다.

우선, 국내·외의 안보 도전요인에 대한 능동적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 등 초국가적 위협이 확산되고 있으며, 역내 국가 간 도서영유권 문제 등을 포함한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공군은 국가차원의 분쟁 예방 및 억제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주도적 작전수행 역량의 발전과 연합 및 다국적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전방위·다차원의 군사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변화되는 작전환경에 대한 창의적인 적응과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이 필요하며, 동시에 효율적 전력구조 및

병력	1,600여 명	27,300여 명	43,900여 명	66,000여 명
항공기	20대	360여 대	720여 대	780여 대
비행단	1개	5개	10개	12개
	창군당시	1970년	1990년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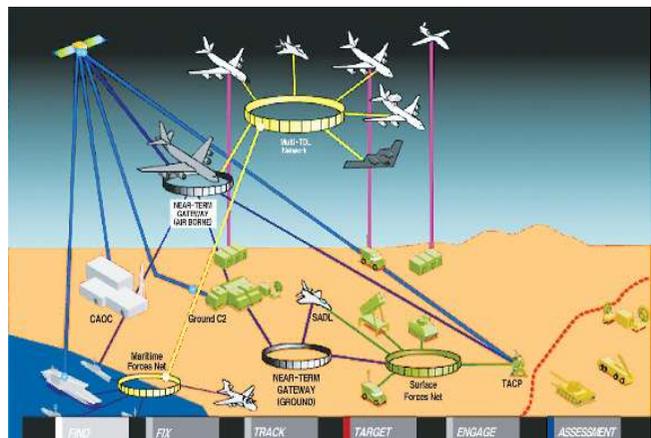
운영환경의 확립이 필요하다. 전장이 우주와 사이버를 포함하는 5차원 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래전장에서 성공적인 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다양한 요망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네트워크중심전(NCW: Network-Centric Warfare), 효과중심작전(EBO: Effect Based Operations) 개념의 발전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의 병력집약형 전력구조를 저비용·고효율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군력 운영이 필요하다.

공군은 안보와 작전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출산율 저하와 각 군 간 군 복무기간 차이 등으로 군 복무 자원 감소 및 공군 지원율 감소, 숙련급 조종사 및 정비사 등 핵심전력의 유출 증가, 군 복지 수준의 향상 요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군내 여성인력의 효과적 활용과 같은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관리의 문제와 공군관련 소음 및 기지이전 민원 증가, 세대 간 국가관 및 안보·역사관의 다양화와 같은 갈등 발생 가능요소들에 대해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 미래 안보환경 전망

공군비전 2030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안보, 국방과학기술, 미래전 양상으로 구분하여 전망하였다. 미래에도 미국은 초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할 것이나 유럽연합, BRICs(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동권 국가 등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또한 민족, 역사, 종교, 영토, 자원 등의 복합적 갈등요인에 의한 국지적 분쟁들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비대칭 위협의 증가와 국제범죄 및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협력과 경쟁을 병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다자안보기구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동북아에서는 국가 간 교류협력력이 증대되는 반면 남·북한 문제, 배타적 민족주의, 자원 및 영토분쟁 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과 군사력 증강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개입 기조를 유지



할 것이며 일본은 첨단 군사력 구비와 병행하여 보통국가화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급성장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해군 위주의 군사력 증강을 계속할 것이며,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감소된 영향력을 회복·증대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핵 및 생화학 무기 등의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부적 불안이 증가되어 체제위기에 직면할 경우 국면 전환을 위한 다양한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남·북 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반복·병행되는 이중적 관계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될 경우 남·북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과 북한정세의 급변에 의한 갑작스런 통일여건 조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 국방과학기술 전망과 미래전 양상**

미래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은 공군의 미래 작전환경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이다. 미래 과학기술은 핵심기술들이 상호간 융합을 통해 시스템화되는 융합기술(Fusion Technology) 현상의 심화를 기반으로 U-City, U-Health와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유비쿼터스 시스템, 자동감지 및 자율 판단능력의 지능형 로봇과 같은 기술의 시스템화와 지능화가 성숙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혁신 속도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되어 기술의 대체기간과 성능향상 속도가 단축되고 발명에서 실용화까지 기술의 순환주기가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바이오 및 합성연료, 수소, 태양에너지, 핵융합에너지, 레이저 등의 신개념 대체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방과학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와 효과 및 지식 중심의 연합·합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인 네트워크 중심작전환경(NCOE: Network Centric Operation Environment)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 및 컴퓨터 군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정밀유도무기(PGM: Precision Guided Munitions)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대용량 정보융합처리체계와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공격하는 차세대 지능탄 등이 활용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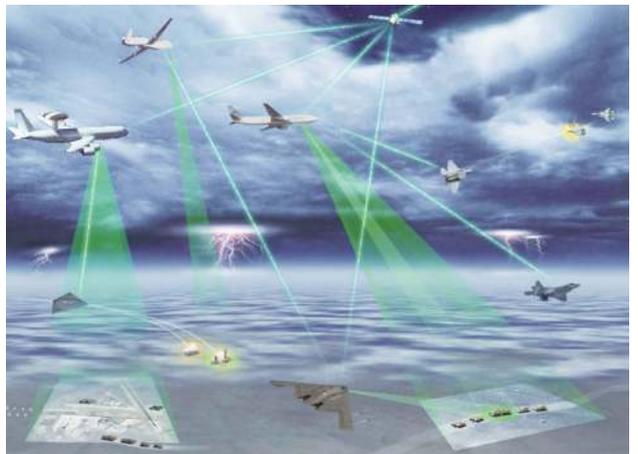
항공무기체계 기술 분야에서는 초기동성, 초음속 순항 스

텔스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단독 또는 유인기와 합동작전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전투비행체(UCAV: Uninhabited Combat Air Vehicle) 개발 등 스텔스 및 무인기 기술이 경쟁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우주·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군사기술과 마이크로 기계공학, 나노 전자공학, 나노 추진 및 비행 동역학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저탄소·미래 에너지를 활용한 무기 탑재체계 및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고출력 마이크로파(HPM: High Power Microwave), 고에너지 레이저(HEL: High Energy Laser) 무기가 전력화될 것이다.

미래전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공중, 지상, 해상 및 우주, 사이버 공간을 포함하는 5차원 전장에서 우주기반 전력 및 스텔스 전투체계를 운용하여 네트워크중심전과 효과중심작전 등이 보편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또한 위협 및 도발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소모전·섬멸전의 재래식 전쟁보다는 비정규전 및 비대칭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력 운용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합·합동 작전이 일반화될 것이다.

**8 공군의 비전**

미래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공군력 발전과 운용을 위한 공군의 비전은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을 건설하는 것이다. 공군은 “공중·우주·사이버 영역에서 항공우주력을 운용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국익증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전 시에는 연합·합동전장을 주도하여 我 지·해상군에게 행동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전승 달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공군인이 역량을 집중하여 달성해야 할 미래 공군의 청사진을 비전목표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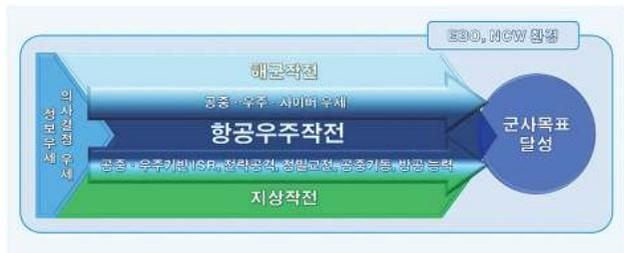


효과중심의 항공우주작전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 구축을 위해 2030년까지 우주작전부대와 항공우주통제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며, 2030년 이후 작전사령부 예하에 전투사령부, 기동사령부, 방공포병사령부 및 우주작전부대와 항공우주통제사령부를 통합한 우주사령부를 창설하여 전문 기능사령부 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인적자원 분야는 정예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체제 정립을 목표로 국방 전문인력과 멀티롤(Multi-Role) 리더 양성에 노력을 집중하고, 우주조종사 양성·지원을 통해 우주산업 분야 민·관·군 협력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다.

최상의 항공우주력 운용을 보장하는 교리발전 및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확립을 위해 교리발전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유비쿼터스 교육훈련체계를 통해 정보화·과학화된 선진 교육훈련 체계를 정착시킬 것이다.

NCW 수행의 핵심능력인 정보화 체계는 ALL-IP(ALL Internet Protocol) 기반의 디지털 비행단 구축을 2020년 이전에 완료하고 위성체계를 활용한 범세계 통신망(GIG: Global Information Grid) 기반의 디지털 공군을 구현하며 지능형·능동형 사이버전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군수 분야는 첨단 SMART(Speed/Maintenance/Accuracy/Readiness/Transparency) 군수지원체계 확립을 목표로 군수자원 및 구성요소를 가시화하기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의 통합 군수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연합·합동 전장의 요구를 신속히 인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시설 분야는 미래 전장에 적합한 친환경 군사시설 구축 및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비행단 표준화 모델을 정립하고 미래 지향적 시설 및 설계기준 개발을 통한 과학화, 첨단화, 복합화된 통합시설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 복지 요구 수준을 고려한 병영시설과 저비용·고효율의 시설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예비전력 분야는 상비전력 수준의 예비전력 유지를 목표로 공군 특성에 적합한 동원정책 및 제도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안보위협과 확장된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첨단화·과학화

된 예비전력 관리·운용체계를 정립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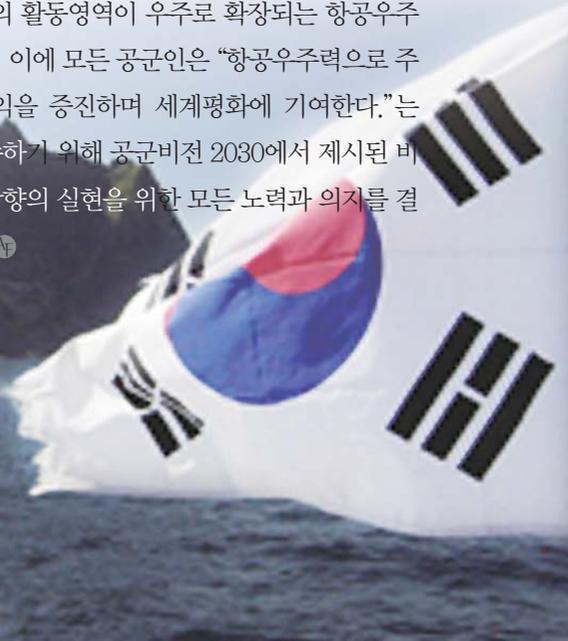
무형(無形)의 전력인 사기 및 복지 분야는 군 특성을 반영한 선진 복지체계 구축·발전을 목표로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지 수혜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민·관·군을 연계한 통합복지체계 구축으로 후생복지 기능을 강화하며 장병 및 가족의 삶의 질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복지개념을 정착·발전시킬 것이다.

공군문화 분야에서는 세계일류 공군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 공군문화 창달을 위해 '하나되는 공군, 함께하는 공군문화' 정립을 통해 조직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뉴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민간과의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및 홍보장비 현대화, 전문인력 양성, 기지별 종합문화 홍보센터 건립·확충 등을 통한 첨단 문화홍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국제협력 분야는 다자간 공군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공군' 구현을 위해 군사협력의 범위를 연합훈련 위주에서 모든 군사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한국군이 주관하는 연합·다국적군 훈련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익증진을 위해 국제비행훈련 컨소시엄(IMAFCC:International Military Flight Training Center Consortium)과 에어쇼, 해외 방산 전시회를 상호 연계하고, 장거리 수송능력 확보를 통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확대 수행함으로써 범세계적인 위상에 걸맞도록 공군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다.

8 결론

말과 마차가 주요 이동수단이었던 시대에는 '지상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하였고, 해상활동이 국가번영의 주요 수단이었던 시대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 하였다. 이제 인류의 활동영역이 우주로 확장되는 항공우주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에 모든 공군인은 "항공우주력으로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증진하며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공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공군비전 2030에서 제시된 비전과 분야별 발전방향의 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과 의지를 결집해야 할 것이다. ㉞





# 공군의 미래는 나의 것

- 2009년 임관/입대 새내기 공군인 5인 5색 인터뷰 -

글·사회 소령 리동섭 |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보통 젊은 세대들을 가리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이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패기, 열정이 기성세대들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잣대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툭툭 튀는 재기발랄함은 조직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으로 한 줄기 식은땀을 흘리게 만든다. 하지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제어하기 힘든 자유분방함을 무기로 종횡 휘두르는 이들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기성세대들이 소중히 보존해 온 가치들을 공유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소통함으로써 하나되는 것이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잡은 불안감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공군창군 60주년을 기념하는 월간 「공군」 10월 특집호 두 번째 특별인터뷰로 올해 공군인이 된, 올해 임관 또는 입교한 다섯 명으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군에 대한 생각과 꿈을 들어 보았다.

**사회자 :**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모두 올해 임관하거나 입교한 사람들입니다. 공군에 발을 내딛게 된 계기는 각자 무엇인가요?

**허한 생도(이하 허 생도) :** 제가 사는 곳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머리 위로 전투기 대 여섯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꿈이 파일럿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를 선택할 때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예지 소위(이하 이 소위) :** 고등학교 때 소록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환자들과 가까이 있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정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다니는 간호사관생도들을 보고 국군간호사관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 및 임관 전 보다 전문적이고, 선진 정예화된 공군의 이미지와 병원뿐만 아니라 비행단에서 적극적으로 건강증진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군간호장교의 역할이 마음에 들어

공군에 지원했습니다.

**황홍규 이병(이하 황 이병)** : 공군을 처음 접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공항으로 에어쇼를 보러 가서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남들처럼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군만큼 선진 병영문화를 갖춘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군 장병들이 전문적인 재능을 살리면서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문근영 학생(이하 문 학생)** : 웬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군인이 좋았어요.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요, 그러던 가운데 항공기를 정비하는 분야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졸업하고 나면 군인도 될 수 있고, 항공기도 고칠 수 있으니까요.

**허영환 하사(이하 허 하사)** : 초등학교 때부터 군인이나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중학교에서 전자키트(Kit)를 만지게 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나중에 커서도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던 차에 공군 항공과학고에 들어가면 된다는 정보를 얻어서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사회자** : 각자가 생각하는 공군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면요?

**황 이병** : 할아버지 댁이 청주였는데, 명절을 맞아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려면 항상 공군사관학교를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끔하게 제복을 차려입은 사관생도들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공군 하면 짙은 파란색 제복을 입은 생도가 떠오릅니다.

**허 하사** : 항공기술이 먼저 떠오릅니다. 공군 하면 비행기, 그리고 그 비행기를 움직이는 기술들이 공군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학생** :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에어쇼에서 본 항공기가 공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닐까요?

**이 소위** : 처음 임관했을 때 선배들에게 현재 공군 내에서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무하면서 스스로도 느끼기에 우리 공군이 비록 타군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그만큼 더 변화에 민감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자** : 공군인이 된 지 채 10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나요?

**허 하사** :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모습을 가능하게 한 것이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공군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학생** :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최소 1년 동안은 지금의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말고는 말이죠. 현재 제 본분에 충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이병** : 입대 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공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공군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다짐했



공군사관학교 1학년 허환 생도(2009년 공군사관학교 입교, 공사 6기)



항공과학고등학교 1학년 문근영 학생(2009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 항공고 41기)



교육사령부 항공과학고 허영환 하사(2009년 부사관 임관, 항공고 38기)



공군본부 문화홍보과 이병 황홍규(2009년 병 입대, 병 678기)

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공군본부에 기동홍보팀인 만큼 국민들과 입대를 앞둔 또래들에게 공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허 생도 :** 사관학교에 입교한 지 이제 10개월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서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미래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충분히 한 만큼 제 꿈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소위 :** 생도 때부터 선배들에게 간호는 3H(head, heart, hand)로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간호 지식(head)이 해박하거나 기술(hand)이 능숙하더라도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는 진심(heart)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요, 지금 제가 항공우주의료원 병실에 근무하다보니 입원환자간호가 저의 주된 임무입니다. 항상 환자들을 대할 때 3H를 떠올리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지난 60년간 여러분처럼 젊은 열정을 지닌 공군인들의 노력 덕택에 공군이 지금과 같은 활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60년을 많은 사람들이 항공우주군에 대한 시대적 사명을 공군에 걸고 있습니다.**

**허 하사 :** 또 다른 도전입니다. 이제 공군에서 우주분야의 기술까지 필요로 한다면 스스로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하기 때문 입니다. 아직은 어떻게 도전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노력한다면 분명히 그 분야에서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위 :** 앞으로 우리 공군의 영역이 하늘에서 우주로 확대되면 그 중요성 및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1년 전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나온 것처럼 우주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막연한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면서 미래에 우주로 나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미래의 중심에는 우리 공군이 있어야겠죠.

**허 생도 :** 언젠가 제 아버지께서 단순하게 전투조종사가 된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는 항공우주시대니까 우주를 꿈꾸어 보는 것이 어떠냐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꿈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공군은 나에게 어떤 곳이다”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허 하사 :** 공군에 발을 딛기 전, 성실하게 생활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과학고에 들어와 선배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등에 관해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허 생도 :** 평소 “나는 공군사관학교 갈 것”이라고 주변에 제 꿈을 당당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를 극복 하여 공사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꿈을 실현하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그렇기에 공군은 제게는 “도전”의 의미가 큼니다.

**황 이병 :** 공군 하면 하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큰 만큼 한두 사람의 군이 아니라 더욱 많이 알려져서 “우리 모두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학생 :** 저도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만일 제가 항공과학고등학교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집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꿈이었던 제게 “꿈을 구체화해 준 발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소위 :** 공군은 저에게 “애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그런 곳 이죠. 앞으로 군 복무하는 동안 공군인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며 공군에 대한 제 사랑을 마음껏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모두들 이제 막 공군이라는 곳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소중한 꿈을 끝까지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Roscosmos, 중국은 CNSA가 2008년 10억불 이상을 우주분야에 투자하였다.

**우주산업 동향**

우주산업은 발사체, 위성제작, 위성서비스 및 지상장비 분야로 구분한다. 표 2에 2007년까지의 우주산업 총매출 현황이 나와 있다.

한편 그림 2에는 분야별 매출을 보여 준다. 2008년에는 위성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60%로 가장 높으며 18%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	71.3	74.3	82.7	88.8	106.1	123.0

표 2. 세계 우주산업 총매출(단위: 십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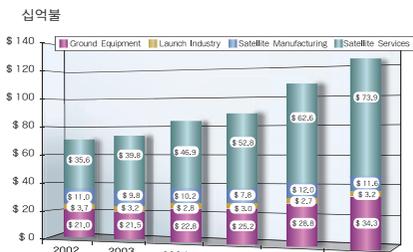


그림 2. 세계 우주산업 매출

그림 3에 2007년까지의 위성매출액의 추이가 나와 있다. 2007년에는 상업용 위성 및 정부주도개발 위성 102기가 발사되었다. 이 중 상업용 위성의 비중은 33%이며 정부주도개발위성보다 빠른 성장을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위성제조 산업은 전 세계 시장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며, 2006년에 50억\$에서 2007년에는 48억\$이다. 지구정지궤도위성의 경우, 2007년 21기가 발주되었으며, 이 중 52%는 미국이, 43%는 유럽 제작 기업이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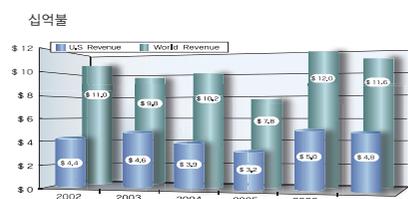


그림 3. 세계 위성산업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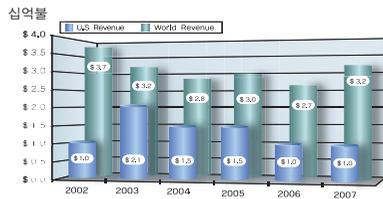


그림 4. 세계 발사체 산업 매출



그림 5. 지상장비 산업 매출

그림 3은 위성산업의 매출 추이를 보여 준다. 최근의 위성산업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그림에는 내용이 없지만 사업용 위성제작은 35억\$ 규모로 정부주도개발위성보다는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4에는 발사체 매출이 표시되어 있다. 2007년에 26종의 발사체로 68번의 발사가 있었고 120기의 탑재체가 발사되었다. 러시아 발사체가 26회이고 미국은 19회, 중국 발사체는 10회가 발사되었다. 그림 5는 지상장비 매출을 보여 주고 있다. 지상장비 부문은 위성서비스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소비자용 지상장비 매출의 증가가 상당히 큰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국내우주산업은 거의가 정부주도 중심의 연구개발이며 아직은 우리나라 경제력의 세계적 위상에 비하면 미미한 실정이다.(표 3)

연 도	정부 R&D 예산(A)	우주개발 R&D 예산(B)	B/A(%)
2003	65,154	1,353	2.0
2004	70,827	1,710	2.4
2005	77,996	1,893	2.4
2006	89,096	3,125	3.5
2007	97,629	2,951	3.0
2008	108,596	3,153	2.9
2009	123,437	2,769	2.0

표 3. 우리나라 정부 우주개발 예산(단위: 억원)

**우주기술개발의 필요성**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우주탐험에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에서 다시 불붙기 시작한 우주경쟁에 미국과 러시아

가 다시 합류했고, 또한 프랑스 중심의 유럽도 경쟁력 향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많은 개발도상국가들도 국가 중심의 우주개발프로그램을 시도하여 앞으로 세계 우주산업의 규모가 지금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 안보 및 위상제고와 밀접한 우주기술과 산업의 특성과 우주 강국인 중국, 일본 및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또한 북한의 발사체 개발 등으로 우리나라도 첨단 미래우주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이 매우 시급한 형편이다. 따라서 미미한 우리의 우주산업 수준과 규모를 당분간은 '집중과 선택'의 전략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육성 정책의지, 우주개발관련 기구의 집중지원, 연구 전문인력의 조속한 양성과 관련 산업체의 특화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분야인 IT 기술과 결합된 우주개발정책을 추진하면 다목적실용위성을 통해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의 지구관측위성 시장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서도 우주활용 분야에도 상당한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육성정책을 추진하며 우리나라도 세계시장의 10% 정도는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AF)

**참고문헌**

1. Euroconsult, Government Space Markets World Prospects to 2017, 2008, pp.3~36.
2.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 우주산업실태조사, 2008, pp.26~35.
3. Futron, Status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2008.
4. Spacefoundation, The Space Report, 2008.
5.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2007.
6.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주요통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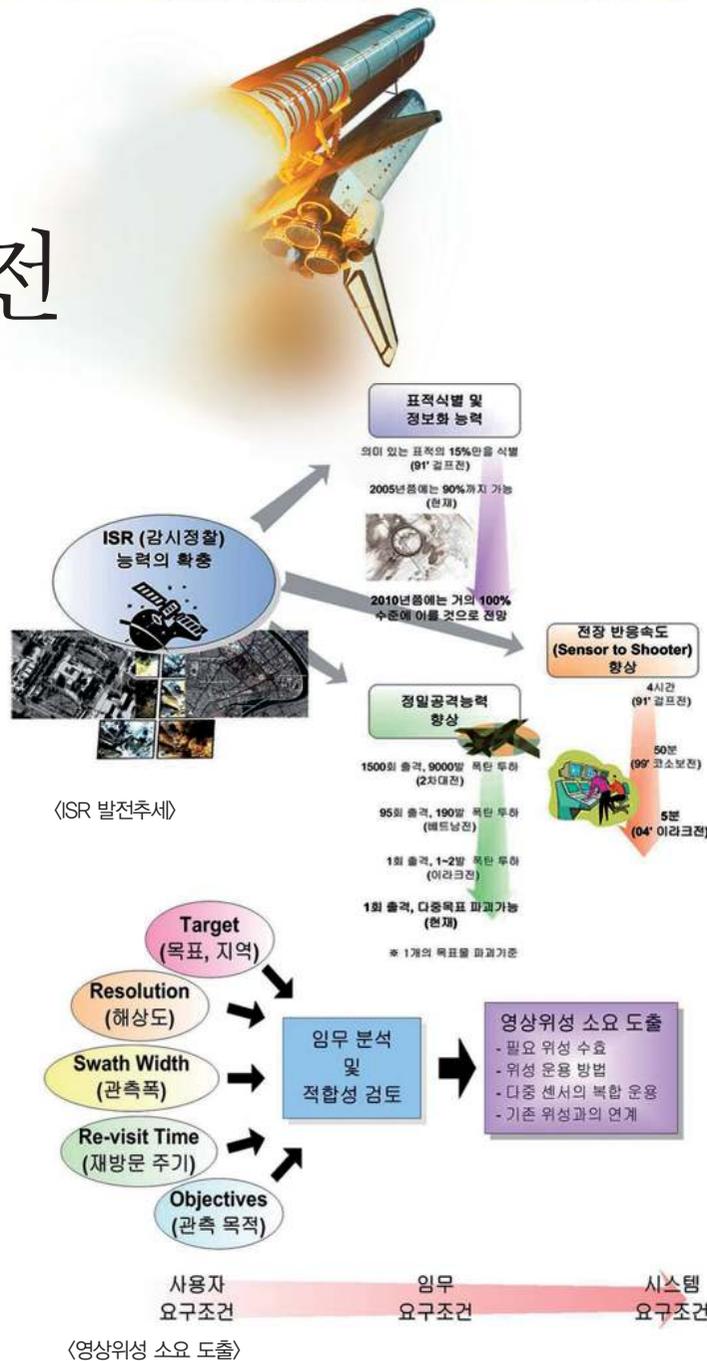
# 공군의 미래 우주전략 및 비전

장영근 교수 | 한국항공대학교

군사 활동에서 우주의 역할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현재 지구궤도에는 900여 기 안팎의 인공위성이 운용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의 위성(300여 기 정도)이 정찰에서 무기체계의 유도 제어를 위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위성은 군사운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필수 요소가 되어 가고 있다. 2004년 이라크전에서는 전체 무기의 68%가 위성에 의한 유도 제어를 통해 운용되었다. 1991년 걸프전의 10%에 비하면 군사운용에서 얼마나 위성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감시정찰위성을 이용한 영상정보 획득(ISR), 특정 표적에 대한 정보의 획득, GPS/INS를 이용한 정밀항법/타격 및 폭격지연(PGM ; Precision Guided Missile), 군용통신위성을 이용한 광대역 통신체계 구축(C4I) 등의 임무가 포함된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이 군 우주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더욱 많은 국가들이 우주의 군사적 활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상용 또는 민수용 위성 데이터의 가용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들이 발사장 시설을 운용하고 발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이들 발사장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소형위성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세계에서 50여 개 나라가 위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래전에서 우주전력의 우세에 의한 우주 공간의 장악은 전쟁의 수행 시 아군 행동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과거 고지의 점령이나 제공권 장악과 마찬가지로 우주 공간의 장악은 적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아군이 의도한 대로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우주전력 우세에 의한 우주 공간 장악의 이점은 걸프전과 코소보 분쟁, 그리고 아프간, 이라크전을 통하여 증명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여러 분쟁을 통하여 우주전력은 미래 군사작전의 핵심적인 전력으로 중요성이 더해져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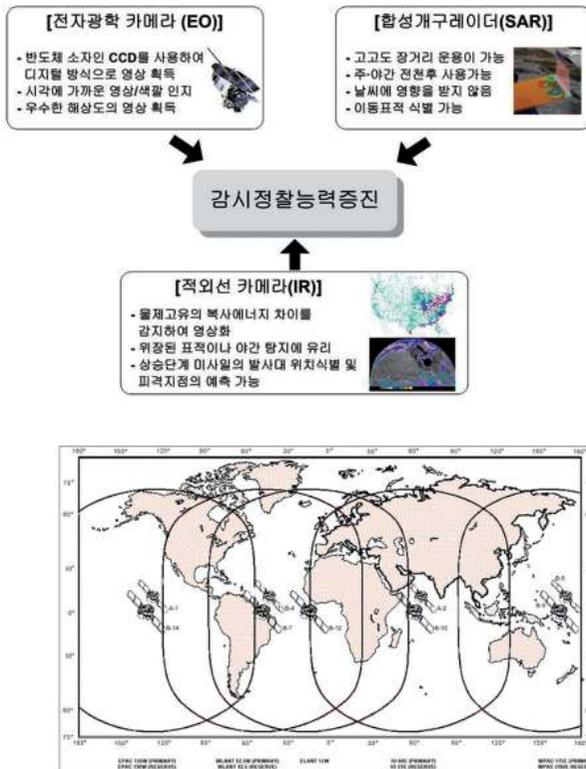
특히 걸프전 및 아프간전의 경우 다국적군은 정찰위성, 감시위성, 통신위성 그리고 항법위성 등 100여 기의 군사위성에 의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 수집, 항법, 통신, 기상 그리고 탄도탄의 조기 경보 및 요격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작전을 수행하였다.

공군에서는 지난 2000년 발표한 “공군비전 2025”에서 ‘공중과 우주 그리고 정보영역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보장하는 항공우주군’을 공군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무기체계 구축을 포함한 6개 분야를 언급하였다. 무기체계에서 ‘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우주기반의 감시 및 정찰, 항법, 통신, 기상지원 능력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 할 것을 명시하였다.

합참 군사전략기획서에 우주작전 내용을 반영시키고 우주전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 국방부와 합참 수준에서는 우주자산의 필요성과 군 우주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공군에서 군사 활동을 위한 우주자산의 획득을 역설하고 있지만 상위 기관에서의 이해 및 실행계획이 부족해 미래 우주전략이라는 것은 공군의 원론적인 우주계획 수준에 불과해 보인다.

(ISR 능력 증진을 위한 위성의 활용)



공군이 입안한 우주전력 육성계획도 2007년 국감에 제출한 자료와 2008년 8월 월간 「공군」에 실린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그만큼 국방부, 더 나아가 공군에서도 국가의 군 우주전략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도 지휘소도 없다는 의미다.

우리나라가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방부 수준에서 “군 우주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군에서는 구체적인 군 우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군 우주 중장기 전략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 1단계(2009~2015) ; 군 우주전력 기반 구축 및 민·군 통합 활용체계 확립
  - 다목적실용위성(3호, 3A호, 5호 등) 고해상도 영상의 군 활용체계/전술적 목표를 위한 활용체계 구축
  - 군 우주정책과 우주개발 추진전략 입안 및 실행
  - 군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군 우주체계 확립
  - 군 전용 소형위성 개발 능력 확보
- 2단계(2016~2025) ; 한국형 우주전력체계 구축
  - 우주군 사령부/우주작전단 창설
  - 동북아 우주감시체계 구축
  - 군 전용위성 개발을 통한 군 우주자산 기반 구축(C4ISR)
  - 한국형 우주보강 군 항법시스템 기반 구축
  - 우주무기체계 연구 및 개발(Anti-Satellite, 지상 및 항공기 기반의 레이저 등)
- 3단계(2025 이후) ; 한국형 우주전력체계의 고도화
  - 독자적 우주작전 능력 확보
  - 한국형 우주보강 군 항법시스템 구축
  - 한국형 우주무기의 실전 배치

정부는 자주국방과 전쟁 억제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추진 중이며, 2009년 현재 다목적 실용위성 5호(전천후 영상위성 ; 합성개구레이더)와 다목적 실용위성 3A호(0.7m 해상도의 흑백 영상과 적외선 영상의 전자광학카메라)를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이들 위성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와 이에 따른 요구조건 및 상호 연계 운용 방안 등에 대한 상세 “운용개념” 분석 없이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증대한다는 논리만으로 개발을 추진해 성공적인 발사 후 군 임무 활용성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정찰을 위해 영상위성 수요를 도출할 때 특정 표적이나 지역을 어느 시기에 어떤 주기로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어떤 형상의 영상을 촬영할지에 대한 명확한 수요에 의한 근거도 필요하다.

미래에는 국가안보 전략을 지원하는데 우주전력(Space Power)이 항공전력(Air Power)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공군도 우주전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최근에 우주 관련 조직도 만들고 인력 양성 계획도 입안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공군이 교육, 전략, 리더십, 예산 및 이해도 측면에서 우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중, 지상, 해상 및 우주작전에서의 성공은 공중 및 우주 우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우주전력의 강화와 함께 항공전력과의 실질적 통합도 필요하다. ㉞

# 첨단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홍성표 교수 | 국방대학교



**창**군 60주년을 맞이한 한국군은 명실공히 세계 10위권의 막강한 첨단군으로 성장하였다. 한국군은 예산규모 세계 10위, 병력 5위, 무기장비 10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군의 외형적 수치만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무대에서 유엔 평화지원작전에 참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타국군들과 크게 비교되고 있다. 2006년 유엔의 PKO본부장은 한국군이 참여하면 그 어느 나라 군보다도 신뢰가 되고 임무성공에 대해서 낙관한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1991년 걸프전은 20세기말 전쟁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전쟁이었다. 토마호크미사일과 압도적으로 우세한 항공우주력으로 이라크의 전략중심을 공격하여 무력화시킨 후, 적의 저항능력이 요구수준 이하로 떨어진 후에야 지상군을 투입하여 적을 항복시키고 전쟁을 마무리하였다. 개전 첫날에 다국적군은 토마호크미사일을 포함하여 F-117, F-14/15, F-16/111, B-1/52 등으로 원거리 정밀유도 무기들을 발사하여 적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사담 후세인의 전쟁지휘체계를 일시에 무력화시켜 결국 굴복시켰다. 이라크는 100만명이 넘는 대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다국적군의 공격에 놀려 반격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궤멸되었다.

걸프전 이후 선진국들은 이 같은 새로운 전쟁패러다임에 적합한 항공우주력 중심의 첨단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환골탈퇴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과거 산업화시대의 양적인 군대에서 새롭게 밀려오는 정보화시

대의 첨단과학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병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여 군대의 운영유지비를 대폭 절감시키고, 대신에 첨단 항공우주력 중심의 원거리 정밀타격체계를 구축하는데 투입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정예군으로 전환시켰다.

물론 선진국들이 항공우주력 중심의 첨단군사력으로 탈바꿈하는 데에는 개혁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미국의 경우 럼스펠드 장관은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을 예비역 중에서 특수전사령관을 지낸 슈메이커 장군을 현역으로 복귀시켜 개혁을 추진하게 하였다. 프랑스는 대통령실 실장을 국방개혁위원회에 배치시켜 대통령실이 직접 국방개혁을 주도하게 하였다. 독일은 폰 바이체커 전직 대통령을 국방개혁위원장에 위촉하여 개혁추진에 힘을 실었다. 러시아도 2005년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제2단계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추진해온 국방개혁은 거센 저항에 부딪쳐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 아직도 병력중심의 재래식 군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미래전에 대비한 항공우주력 중심의 군사력 건설은 국방재원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려 항상 지연되어 왔다. 2004년 KIDA가 발표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남한이 육·해군력은 열세한 반면 공군력은 우세하다는 평가였다. 지난 반세기 이상 제일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해온 육군이 열세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현 병력중심의 한국군을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시키고 현대전에서 전쟁승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첨단 항공우주력 중심의 정예강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접전투용 재래식 전력들을 점진적으로 감축, 경상비를 절감하고, 대신에 전략적 수준의 감시정찰, 지휘통제, 항공우주, 전략타격 등 첨단체계 건설에 국방재원 배정의 우선순위를 두어 방위력개선비를 투입해야 한다. ㉠



#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공군 우주력 발전계획

글 준장(전) 유병길 | 공군본부 전략기획처장

지난해 건군 60주년에 이어 올해 10월 1일은 공군이 창군 6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이다. 우주분야로 눈을 돌리면 올해가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세계 천문의 해' 이면서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 표면에 착륙한 지 40돌을 맞는 역사적인 해이다. 얼마 전 7월에는 61년 만에 돌아온, 그리고 앞으로 2035년이나 다시 볼 수 있는 개기일식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펼쳐지기도 했었다.

한편, 올해는 국가 우주개발 및 공군 우주발전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국가적으로는 비록 절반의 성공이라고는 하나 우리땅에서 우리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처음 쏘아 올리는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고, 공군에서는 지상에서 우주물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전자광학 우주감시체계가 최초의 우주전력으로 소요결정되는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국방 우주력 건설 기반조성을 위해 전 공군인이 쏟은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공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우주전력들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고, 이와 함께 전문인력과 조직 등도 확충해 나감으로써 항공우주군으로의 도약이라는 공군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군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이하여 우주발전분야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국방 우주전력 발전' 과 '우주전문인력 양성' 에 대해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 軍 우주전력 발전

주변국들의 우주분야 전력증강은 생각보다 빠르게 추진되어 왔다. 중국은 2003년부터 유인 우주선 발사를 연이어 성공시켰고, 2006년에는 자국 상공을 통과하는 미국 정찰위성에 대해 실제 레이저 요격을 시도한 바도 있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탄 공격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정찰위성 4기를 운영 중에 있고, 최근에는 독자적인 국지 조기경보위성 개발·운용을 시사한 바도 있다. 한편 오래 전부터 우주강국의 위치를 유지해 온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도 우주감시, 위성운영뿐만 아니라 대위성 레이저나 탄도탄 요격능력 등 우주전력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도표 1).

(도표 1) 주변국 우주전력 보유현황

구분	러시아	중 국	일 본	미 국	
우주감시	광학/레이저/레이더체계	광학/레이저체계	광학/레이더체계	광학/레이저/레이더체계	
위성운영	1,000여 기	60여 기	16여 기	1,000여 기	
對 위성 요격	레이저	개발 중	개발성공	개념연구 중	개발 중
	탄도탄	다수 보유	다수 보유	未 보유	다수 보유
우주 기동	발사체	10여 종	14여 종	10여 종	17여 종
	발사장	3곳	3곳(1곳추가건설중)	2곳	9곳

\* 근거 : 2007 Space Almanac

최근 들어 우리군도 현대전 교훈을 통해 우주자산을 활용한 군사작전 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변국들의 우주분야 전력증강 양상에 주목하면서, 국방개혁 추진 등을 통한 실질적인 미래전 준비에 착수하였다. 국방 우주력 건설이 국가 안보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군 우주전력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추진전략과 체계적인 확보 계획의 시행이라 보여진다.

먼저 군 우주전력 발전을 위한 공군의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관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국가 우주개발계획과 연계한 국방 우주력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도표 2]. 국가 우주계획 수립시 군 발전계획을 포함한다든지, 민·군협력 국책사업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면 저비용·고효율의 요망효과 창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 현재 운용 중이거나 향후 확보할 계획에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이나 무궁화 통신위성에 대한 군 활용도를 높여 가는 것도 좋은 방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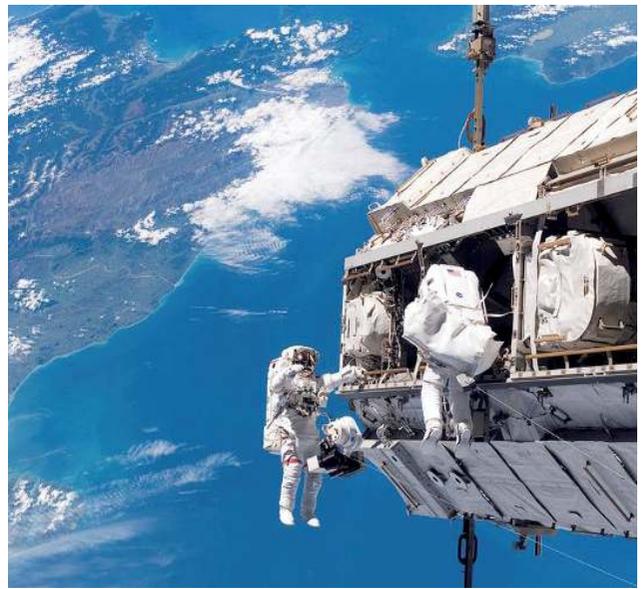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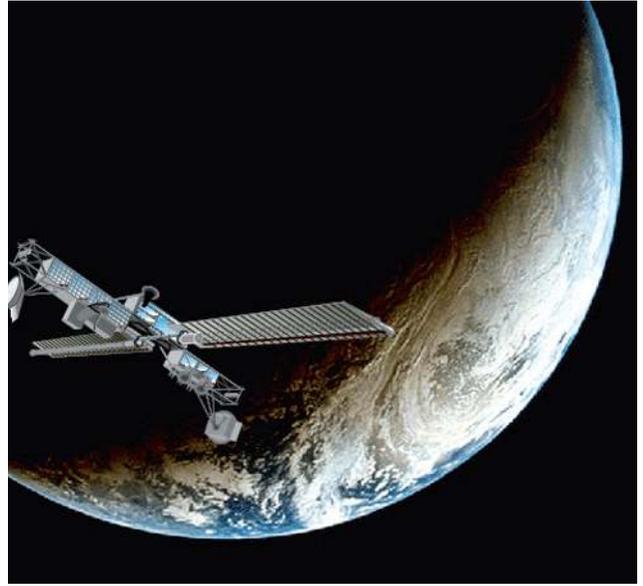
둘째, 국방 재정여건, 국내·외 기술 발전추세 및 미래 우주위협 등을 고려하여 군 우주전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감시센서, 지휘통제, 그리고 요격체계 순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나, 긴 요성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조기 전력화가 가능한 전력들은 병행·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위성항법 및 감시분야에서는 자주적인 요구전력 운영 이전에는 미국 등의 동맹전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전력확보에 대비한 운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도표 2] 국가 우주개발계획

구분	사업명		발사시기
위성	과학기술위성	2호	2010년(연기)
		3호	2011년(예정)
	다목적 실용위성	2호	운용 중
		5호	2010년(예정)
		3호	2011년(예정)
체	통신위성	3A호	2012년(예정)
		3호	운용 중
		5호	운용 중
	복합위성	통신/해양/기상위성	2010년(연기)
발사체	소형위성 발사체		2010년(연기)
	실용급위성(1.5톤급) 발사체		2018년(예정)

\* 투자예산/소요인력 : '07~'16년간 3조 6천억원/약 3,600명  
(근거 : 2009 국가 우주개발 시행계획)



정밀유도무기가 美GPS 신호를 수신하여 운용되는 것을 감안할 때 당분간 미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존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성항법체계 구축, 조기경보위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고액 장기간 투자가 요구되므로, 현 시점에서 독자적으로 구축, 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넷째, 우주전력 확보와 연계하여 우주전문인력 및 조직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국방 우주분야 정책 및 기획수립, 그리고 우주전력 전담 운용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 양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전력운용과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조직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추진전략에 따라 공군은 우주전력 구축을 위한 3단계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재정립한 우주전력 발전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는 2020년까지 광학 우주감시능력 구비를 목표로 전자광학 우주감시체계 및 우주기상 예·경보체계를 확보함과 동시에 우주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단계로 2030년까지 레이더 우주감시능력 구비 및 군 작전지원 능력 신장을 목표로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소형 정찰위성, 위성영상수신체계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3단계는 制우주작전 능력 구비를 목표로 對위성 레이저 및 탄도탄 요격체계를 전력화하는 것이다(그림 1).

앞으로 공군은 현 우주전력 발전계획을 근간으로 각종 위협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미래전 환경에 대비한 우주전력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것이다.

### 우주전문인력 양성

지난해 9월 공군은 우주분야 정책 및 전력기획 업무 등을 전담할 우주전문인력을 최초로 선발하였다. 조종, 항공통제, 방공포병 등 우주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8개 병과를 대상으로 우주관련 국내·외 연수교육 이수자 및 해당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중 군 우주분야 발전 기여도와 향후 잠재능력 등을 고려하여 총 37명을 선발한 것이다.

선발된 우주전문인력에게는 기존 각자의 특기부호에 우주(Space)를 상징하는 접미어 'S'를 추가하였으며, 해당 병과내 우주정책·전력기획 및 우주작전 수행업무와 관련된 28개 우주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임되어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와 함께 우주전문인력 보임이 필요한 28개 우주직위를 새로이 지정함으로써 효율적 전문인력 관리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금년 2월에는 우주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사령부 정보통신학교에서 “우주전문인력 장교 보수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동 과정 중에 ‘제1회 우주전문인력 워크숍’을 병행 개최하여 군 우주력 건설 추진전략과 발전



(그림 1) 군 우주전력 발전계획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군은 앞으로도 소요인력을 고려, 주기적으로 우주전문인력 선발과 우주직위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주전력 및 부대구조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정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우주특기 신설도 적극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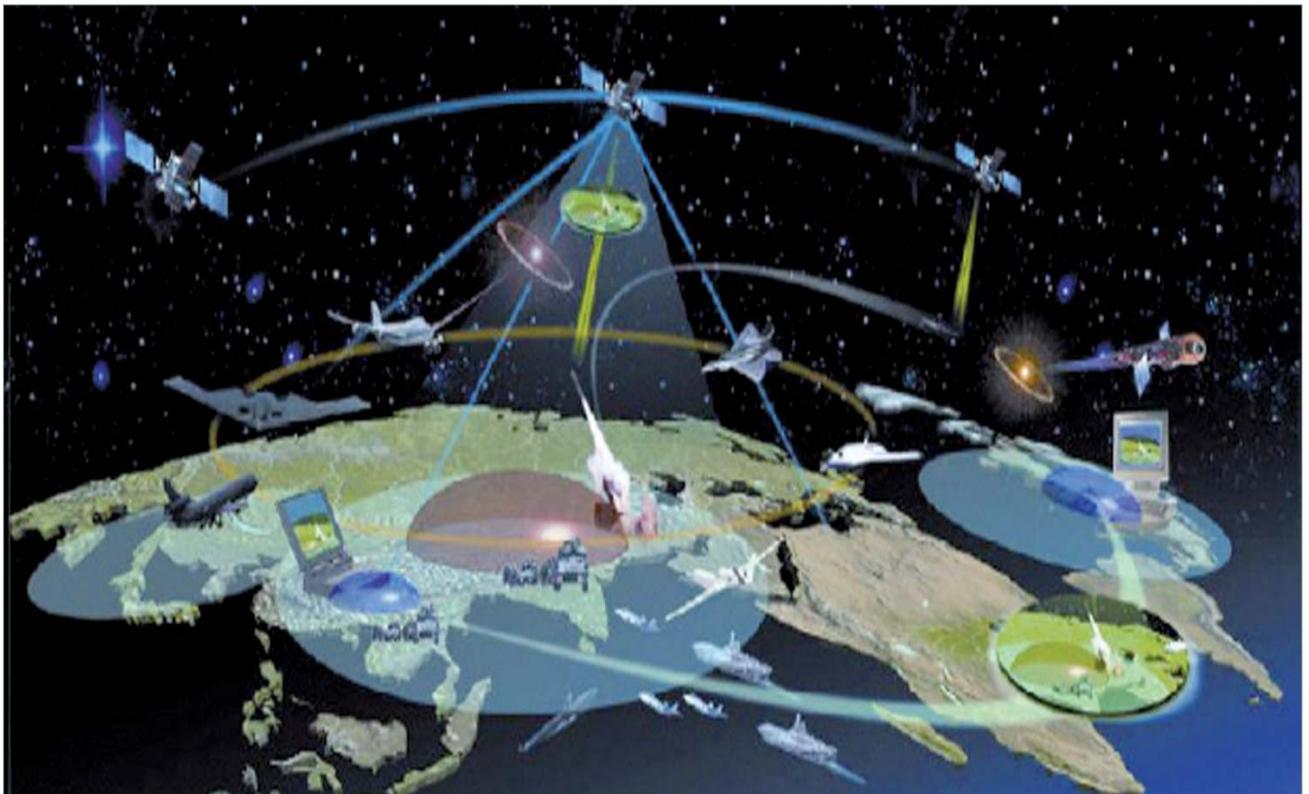
이제 전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미래 우주전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결코 전승보장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향

후 북한의 장거리 탄도탄 발사능력에 대응한 우주 정보우세 능력 구비와 주변국의 우주전력 증강에 대비한 군 작전능력 신장 및 전쟁억제력 제고를 위해 우주전력 구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전장 환경(그림 2)에서의 합동성, 상호운용성, NCW 개념구현 및 국가 우주자산의 운영보장을 위해 군 우주전력 발전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공군 창군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지나온 우주 발자취 10년 역사보다 더욱 비약적인 도약을 기대해 본다. ㉔



제1회 우주전문인력 워크숍



(그림 2) 미래전장 운영개념도

# 미래를 위한 특허

공군사관학교 물리학자의 인공위성 사진 기술 개발 이야기

원문 미 공군 (Airman Magazine)

사진 병장 Desiree Palacios

글 병장 Matthew Bates

번역 중위 이준호 |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모두에게 어릴 적 한 번쯤 “반짝 반짝 작은 별”로 시작하는 노래를 불러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가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별은 사실 반짝거리지 않아요.” 미 공군사관학교 물리학자인 Geoffrey Andersen 박사가 말한다. “반짝거리는 현상은 대기상 기류변화가 인간의 눈에 왜곡된 영향을 줌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류변화가 만들어 낸 것은 위의 가사뿐만이 아니다. 이는 지구 밖에서 공전하고 있는 인공위성들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공군사관학교 내 레이저 및 광학 연구센터 소속의 Andersen 박사는 이에 인공위성들을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신기술을 개발 중이다.

현재 그는 홀로그래픽 적응 제어 광학으로 불리는 기술을 개발, 이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센서 및 렌즈를 이용, 대기 중 기류변화를 최소화하여 우주상의 물체가 좀 더 깨끗하고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기류문제에 대한 방안으로서 적응 제어 광학이 사용된다. “이는 마치 안경과도 같습니다.” Andersen 박사가 말한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시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써 안경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적응 제어 광학을 이용, 우주 공간으로의 깨끗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지요.”

이는 오퍼레이터가 인공위성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군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만일 위성과



공사 생도 Will Holmes가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육사 생도 Richard Carter, Geoffrey Andersen와 함께 홀로그래픽 적응 제어 광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상관제소간 통신이 끊어지면 망원경을 통해 인공위성을 관찰함으로써 문제의 근원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인공위성이 잘 보인다면 당연히 문제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겠지요.” Andersen 박사가 말한다.

지난 몇 십년 동안 공군요원들은 인공위성에 대한 시야 확보를 위해 여러 형태의 기술을 적용하여 왔으나 장비 사용에 있어 막대한 비용 지출 및 공간상 제약이 있어 왔다. “컴퓨터 자체의 크기는 냉장고 정도로 큼니다.” Andersen 박사가 말한다. Andersen 박사의 최신 체계는 홀로그램을 사용하며 일반 DVD 플레이어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가격



Geoffrey Andersen 박사가 육사 생도 Richard Carter와 광학 관련 토의를 하고 있다. 옆에서 공사 생도 Will Holmes가 홀로그래픽 적응 제어 광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Carter 생도는 웨스트포인트에서 온 교환학생이며 Holmes 생도는 공사 4학년에 재학 중이다.

또한 낮출 수 있었고 다양한 경우에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이 장비를 인공위성 내부에 장착할 경우 크리스털 형상을 통해 지구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됩니다.” Andersen 박사가 말한다.

이 장비는 또한 무인항공기에 장착될 시 전투에 임하는 사령관들에게 좀 더 상세하고 명확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는 그 특성 및 높은 비행고도를 고려했을 때 본 기술의 최적 적용대상이라고 Andersen 박사는 말했다. “무인항공기는 비행시 기류변화를 스스로 발생시키며 기류 변화가 극심한 곳까지 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ndersen 박사가 말한다. “본 신기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무인항공기가 고화질의 선명한 사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적응 제어 광학기술은 군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의학 분야, 특히 레이저 안구 수술 시 유용하다. “본 기술은 좀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안구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ndersen 박사가 말한다.

신기술의 능력과는 별개로, Andersen 박사는 본인의 기술이 홀로그래픽 기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고 말한다. 신기술의 발견 및 개발은 물리학자들의 숙명이다. 공군사관학교에서의 13년 종신교수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총 4개의 특허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이력서에 나열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성과물들이 아닌, 미래에 공군을 이끌어 나갈 생도들이 공군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생도들이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ndersen 박사가 말한다.

학생들은 미래의 사진 기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진해서 Andersen 박사의 연구를 돕고 있다. “우리가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현실에 모두 적용되어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저절로 납니다.”라고 공군사관학교 4학년 사관생도 Will Holmes가 말한다. “무엇보다도 Andersen 박사님과 일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별은 실제로 반짝반짝 거리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노력으로 별을 좀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



# 온 세상은 다 무언가의 은유이다



은은하게 걷는 부드러운 동반자,  
 하늘의 부드러운 우유,  
 티 하나 없는 우리 학교 앞치마,  
 호주머니에 사진 한 장 구겨 넣고  
 이 여관 저 여관을 헤매는  
 말없는 여행자의 침대 시트,  
 하늘거리는 귀공녀들,  
 수천 마리 비둘기 날개,  
 미지의 이별을 머금은 손수건.  
 나의 창백한 미인이여,  
 파리의 네루다 남에게  
 푸근하게 내려 다오.  
 네 하얀, 제독의 옷으로  
 그를 치장해다오.  
 그러고는 우리 모두가  
 그를 사무쳐 그리는 이 항구까지  
 네 사뿐한 순양함에 태워 모셔와 다오.

## ‘파리의 네루다를 뒤덮는 백설 송가’

이 시의 제목은 ‘파리의 네루다를 뒤덮는 백설 송가’입니다. 칠레의 국민 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파리에서 머물 무렵 몹시 병약해져 있을 때 이슬라 네그라가 그립하던 그를 위해 무명의 시인 지망생이 보낸 작품입니다. 칠레에 소재한 이슬라 네그라는 ‘검은 섬’이란 뜻의 해안 마을인데, 네루다가 망명 시절 1943년부터 정착하여 바다를 벗 삼아 지내던 곳입니다. 시를 쓴 주인공은 마리오입니다. 네루다가 이슬라 네그라에 머물 무렵 그에게 꼬박꼬박 우편물을 배달해준 집배원 청년이지요. 물론 마리오는 가공의 인물입니다. 대시인과 바닷가 외딴마을의 우편배달부 사이의 우정을 그린 이 아름다운 영화의 제목은 ‘일 포스티노 Il Postino: The Postman’입니다.

## 〈일 포스티노〉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영화의 원작은 칠레 작가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소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입니다. 그는 네루다의 시집 〈스무 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Twenty Poems of Love and a Song of Despair)에 실린 주옥같은 명시들과 네루다가 부인인 마틸다에게 바친 연시에서 영감을 얻어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를 완성하였습니다. 무대는 칠레의 작은 섬마을. 땡땡이치기가 곧 전공이자 취미인 고기잡이 청년 마리오가 우연히 새 일자리를 얻습니다. 공석이 된 우편배달부 자리를 얻은 것인데 대신인 네루다가 이슬라 네그라에 정착했다는 희소식을 듣습니다. 네루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로부터 쫓겨난 상태.

네루다와 친해진 마리오는 대신인으로부터 시를 배우고 은유(metaphor)를 배웁니다. 하지만 마리오가 처음부터 메타포를 잘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요령부득하다는 표정으로, “메타포가 뭐죠? What’s metaphors?”라고 묻는 그에게 대신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충 설명하자면,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마리오가 호기심이 어린 눈망울을 굴리면 대신인은 “좋아, 하늘이 울고 있다고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Well, when you say the sky is weeping, what do you mean?”라고 묻고, 그러면 마리오는 “참 쉽군요. 비가 온다는 거잖아요. That’s easy—that it’s raining.”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대신인은 “옳거니, 그게 메타포야.”라며 맞장구를 칩니다.

**사랑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은유를 배우다**

외롭고 가난한 섬마을에서 마지못해 어부로 성장한 그가 시와 메타포를 배우려고 결심한 이유는 아름다운 처녀 베아트리스에게 빠져버린 다음부터입니다. 그녀는 마을에 하나뿐인 선술집의 딸입니다. ‘한 떨기 장미 같고, 영글어터진 창 같고, 부서지는 물 같은’ 그녀의 웃음을 시로 표현하여 연애편지에 담아보고 싶었던 마리오는 드디어 베아트리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타포를 완전하게 이해한 것이지요. “그대의 미소는 얼굴에 나비처럼 번져. Your smile spreads like a

butterfly.” 마리오의 처음에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도구로 은유를 배우기 시작하였지만, 세상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마술과도 같은 언어의 도구가 은유임을 깨닫는 경지에 오릅니다. 네루다의 가르침, 즉 ‘온 세상은 다 무언가의 메타포(The whole world is a metaphor for something)’임을 배운 덕분에 사랑을 쟁취한 마리오의 차츰 그 사랑을 민중을 위한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시인이 되어 갑니다.

**“시는 읽는 사람의 것이다”**

이 작품에서 무척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마리오와 네루다가 설전을 벌이는 설정입니다. 마리오가 온갖 미사여구로 딸을 넘본다는 걸 알아챈 베아트리스의 어머니가 마리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자 마리오가 대신인에게 달려가 따지듯 하소연하는 장면이지요. 이렇게! “선생님, 당신이 저를 이 소동에 빠뜨렸으니 책임지고 저를 구해주세요.” 마리오의 말하면서 더 큰 확신에 차오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작가님께서 저한테 시집을 선물했고, 우표를 붙이는 데에만 쓰던 혀를 다른 데 사용하는 법도 가르쳤어요. 사랑에 빠진 건 작가님 때문이에요. You gave me your books; you taught me how to use my tongue other than sticking stamps on envelopes. It’s your fault I fell in love.” 그러자 대신인은 정색을 하여 소리칩니다. “천만에! 시집 두어 권 선물했다고 해서 내 시를 베껴 써먹으라고 허락해준 줄 알아? 게다가 자네는 내가 아내를 위해 쓴 시를 베아트리스에게 선물했어.” 그러자 마리오의 뜻밖의 주장을 합니다.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예요! Poetry belongs to those who use it, not those who write it!”

이미도  
작가, 외화번역가  
<이미도의 영어 상영관>  
<나의 영어는 영화관에서 시작됐다> 지음  
<http://blog.naver.com/midomiho>





## 강력한 보습이 필요하세요?

## I Need Ultra Moisturizing!

▣ 상병 정 인 | 32전대 4통제대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가을로 접어들어가는 환절기가 돌아왔다. 못 남성들은 이 맘 때쯤이면 어김없이 찾아온 하얀 각질 때문에 허겁지겁 거울 앞에서 스킨로션을 바르기 마련인데. 그럼 우리가 스킨, 로션, 에

센스, 크림 같은 화장품을 바르는 본래 이유는 무엇일까. 각질을 감추려고?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두 맞긴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일차적으로 건조한 부위에 유·수분을 공급하여 보습하는 것에 있다. 피부 유형이 매우 심하게 건조한 피부라면 화장품을 아무리 덧발라도 좀처럼 각질이 잠잠해지지 않고, 피부는 더욱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유분이 가득한 영양크림을 피부에 꾸덕꾸덕 바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에게 1번만 발라도 완벽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더욱 강력한 보습이 필요하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아니, 아주 오래 전부터 꾸준하게 사랑을 받아온 녀석이 다시 부상하고 있으니! 그 이름 **바.셀.린.**

바셀린(Vaseline Petroleum Jelly)은 미국의 화학자 로버트 체스브로우(Robert A. Chesebrough)가 연구차 유전에 방문했다가 사람들이 상처 치유에 활용하는 것을 보고 상비약인 연고로 만들었던 것에서 출발한다. 석유 찌꺼기인 만큼 깨끗하게 만드는 정제 과정이 필요했는데 비이커에 페트롤리움 젤리를 계속 담아두다가 딱 차서 '꽃병(Vase)'에 담아둔 것을 그 당시 유행하던 의학 용어인 '라인(line)'이란 단어와 합쳐 바셀린이라 했다고도 하고, '물'이란 뜻의 '바소르(Wassor)'와 '기름'이란 뜻의 '오레온(Oleon)'을 합쳐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어원이 어찌됐든 바셀린은 독성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며, 상처 회복과 치유에 도움을 주고, 화상, 짓무름, 건선에 도 매우 효과적인 다목적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 얼굴과 입술에도 강력하게!

바셀린은 피부에 막을 형성하는 피막형성제로서 여드름 피부에게 적합한 제품은 아니다. 하지만 극심한 건조를 호소하는 피부에게는 매우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바셀린을 약



0.7~0.8ml 가량(약지 손톱만큼) 손바닥에 떨어 마구 비벼준 뒤 열이 나서 녹아있는 상태 그대로 얼굴에 가져다가 부드럽게 대주도록 하자. 손으로 문지를 필요 없이 대주고만 있어도 바셀린이 얼굴에 충분히 묻어난다. 2~3회 톡 톡 두들겨 준 뒤 손에 묻어있는 잔여물을 손등에 비벼 없애주면 끝. 이렇게 하면 하얀 각질은 물론이고 고질적인 건조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입술이 심하게 터서 갈라지고 피가 날 때도 바셀린은 슈퍼맨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우리의 입이 항상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잠자기 전에 한번 도톰하게 펴 바른 후 다음 날 아침 휴지로 닦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음 날 종일 보습 효과가 유지되어 덧바를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잠자는 동안 뒤척여 이불이나 베개에 묻지 않도록 한다면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될 것이다.



**손과 손톱에도 강력하게!**

바셀린 소량을 손등에 떨어내어 넓게 펴 발라주면 겨울철 때서운 바람에도 끄떡없이 손등을 보호한다. 손바닥에 바르게 되면 끈적임과 미끌거림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휴지로 손바닥과 마디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바셀린은 제거하도록 한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손톱까지 발라주면 손톱에서 하얗게 일어나는 큐티클(Cuticle)을 가릴 수 있고, 은은한 광택을 주어 건강한 선분홍빛 손톱으로 변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려운 몸에도 강력하게!**

얼굴만큼 관리해주기 쉽지 않지만 몸 피부에도 반드시 신경을 쓰자. 몸 역시 충분한 유·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려움을 느끼게 되고, 긁으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난다. 이럴 때 바셀린을 적당량 손에 떨어 녹인 뒤 가려운 부위에 얇고 넓게 펴 발라준다. 옷을 입을 때 묻어나지 않도록 몇 번이고 마사지하듯 도포하면 손바닥에 묻어나는 양이 많아져 얇게 발리게 된다.

**발뒤꿈치에도 강력하게!**

가뭇이 찾아온 논처럼 짹짹 갈라져 있는 발뒤꿈치를 어떻게 해야 할까? 굳은살을 아무리 제거하고 긁어내도 근본적인 보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때 바셀린을 넉넉히 떨어내어 발뒤꿈치에 도톰하게 발라준다. 그리고 부엌에서 사용하는 1회용 위생 봉투를 발에 씌운 후 덧신이나 발목까지만 올라오는 양말을 신고 생활하면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최소 8시간 이상 발뒤꿈치에 바셀린이 묻어 있도록 방지하며, 제거할 때는 휴지로 한번 닦아내고 흐르는 물로만 가볍게 씻어내기만 하면 오케이. ☺

**바셀린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활용 방법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바셀린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건조한 부위에 모두 바셀린만 바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에 따라 바셀린에 알려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바셀린에 알려지가 있거나, 건조하지 않은데 필요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수포가 형성될 수도 있으니 주의한다(이럴 경우 사용을 중단하면 금새 원래대로 회복된다).



Letters to the Editor

독자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월간 「공군」에서는 여러분의 애정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들은 지면상의 공간을 이유로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소개되지는 못했지만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실 곳은 독자 엽서나 월간 「공군」 반대면 34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

〈권두사〉를 아끼는 독자입니다. 시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더군요. 각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숨쉬기 어려울 때, 한 편의 시를 마주하면 잠깐이지만 삶의 여유를 느낍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한 편의 시가 아름답습니다. 공군의 여러 가지 소식과 더불어 따뜻한 이야기와 유용한 정보를 통해 삶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군 장병들을 위해 많은 용기와 격려를 해주길 바랍니다.

- 인천시 연수구 김도식 -

#2

월간 「공군」을 통해 공군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또 동물과 새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 아들이 〈Bird Alert〉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항상 국민들의 희망이 되는 월간 「공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독자들을 위해 다양한 공군의 소식을 전해주시길 당부합니다.

- 대구시 달서구 장하숙 -

#3

흥미있고 유익한 기사들로 채워져 있는 월간 「공군」을 읽고 나면 많은 지식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 호에는 '참모총장과 함께하는 하계워크숍' 기사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전국 각지의 공군 병사들이 참모총장님께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된 공군'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에 대한 지면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대구시 수성구 송재하 -

#4

무더웠던 여름날이 가고 한줄기 빗물을 통해 누군가가 생각나는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날 여유로움에 빠져 읽게 된 월간 「공군」의 첫 장을 넘기며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정보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들었습니다. 〈공군의 역대 비행기종을 알아보다〉를 읽고 공군의 비행기들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 강원도 태백시 양철윤 -

#5

이번 호에서는 〈공군역사상징인물〉에 '빨간 마후라의 표상 김영환 장군(상)'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공군의 초창기 역사를 알기 쉽게 만화로 소개한 것이 돋보였으며, 알려지지 않은 비화를 소개한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호에는 예전 국방일보에서 다뤘던 복지시설(당시 육군 위주)을 소개하였으면 합니다. 우리 공군의 대표브랜드 공군회관을 비롯하여 올 12월 1일 개관예정인 해운대 호텔 등 이용방법 및 시설현황 소개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동작구 고태호 -

#6

현동선 준위님의 '소쩍새'가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어지면서 비행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함이 경이롭습니다. 앞으로는 예비역 전우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으면 합니다. 전역을 앞둔 장병들의 사회 진출에 참고와 도움이 될 수 있게 〈전우회 코너〉도 곁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 부산시 기장군 이남원 -



### 우 편 엽 서

####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주소 : \_\_\_\_\_

□□□ - □□□□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 장병 독자 엽서

#### 보내는 사람

성명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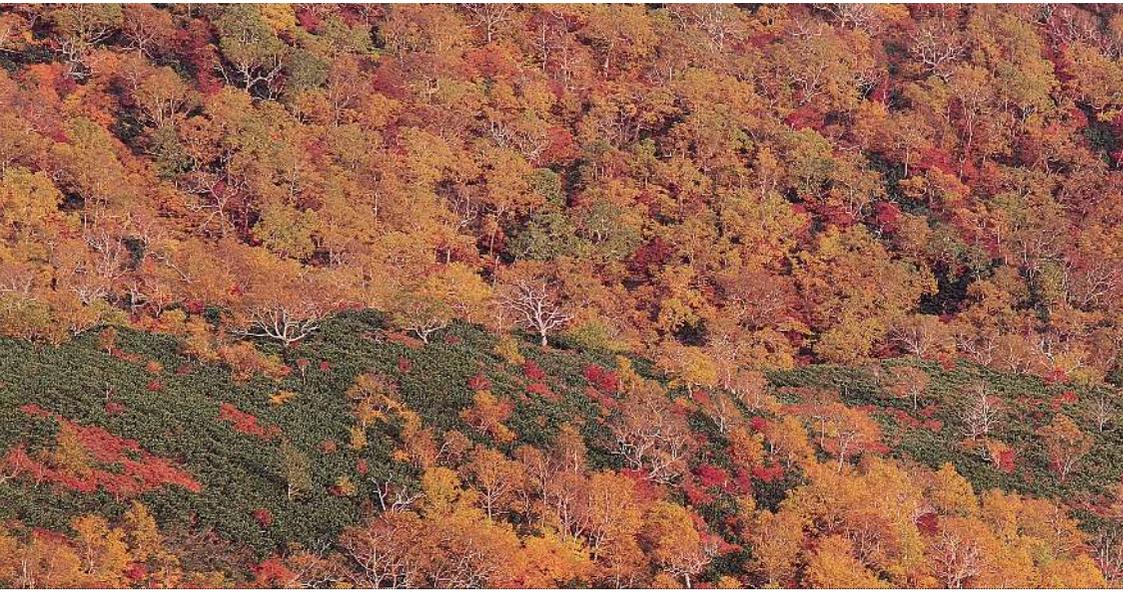
주소 : \_\_\_\_\_

□□□ - □□□□



수신 : 참모총장  
참조 : 정훈공보실장(문흥과장)  
발신 :

321-929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09호 6935, 02) 506-6935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10월호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  
.....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  
.....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  
.....

### 10월호 퀴즈정답

1.

2.

3.





